

Design Semiotics

AI Design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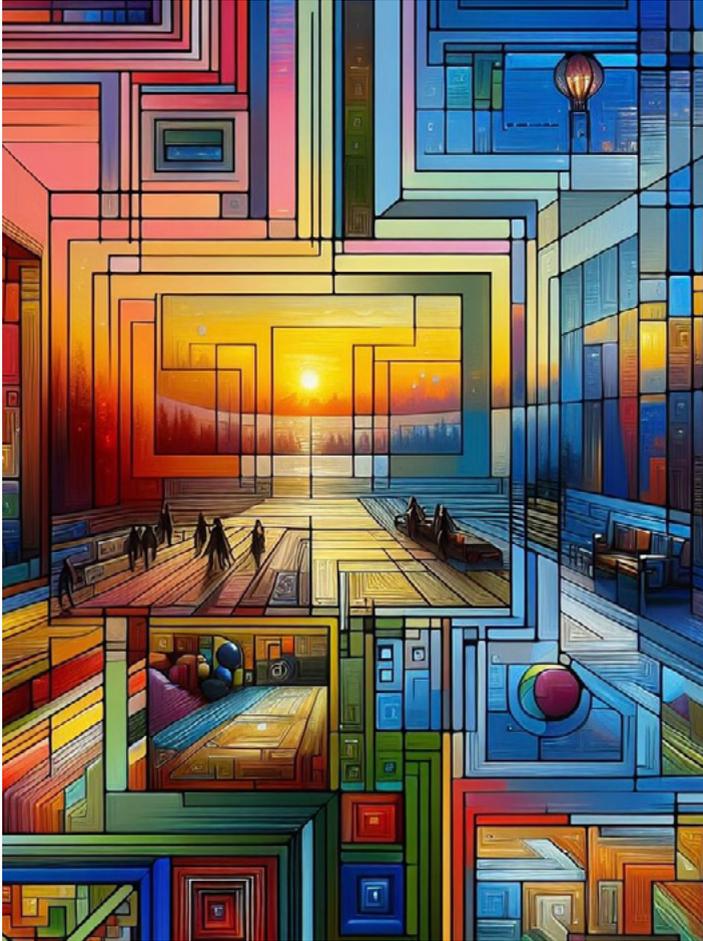
blind plato

Korea University

December 2023



M **Y**
PARADISE
NOT YOURS



What is paradise? Paradise is a matrix for them.

디자인 기호학
AI 디자인 VR 전시회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학과장 김성도 교수)

Creative Director : 최장순 겸임교수



LMNT



<My paradise, Not yours>

인간을 일정한 방향으로 완성해야만 한다는 모더니즘적 강박은 유통기한을 다했다. 종교와 문명 앞에 순결성을 유지한 인간의 끝엔 보편적인 파라다이스가 기다릴 것이라는 믿음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판독의 가능성을 지닌 텍스트이며,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재배치되는 각자의 파라다이스를 생성해낸다.

본 도록은 'Paradise'를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명령어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된 AI 디자인 이미지와 각자의 해설을 담고 있다. 책자는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2023년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수업시간에 탐구한 AI 디자인의 가능성을 체험하고, 이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한 작은 여정을 담았다. 타자에 의해 강요된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나만의 파라다이스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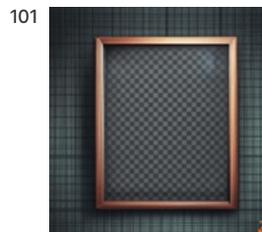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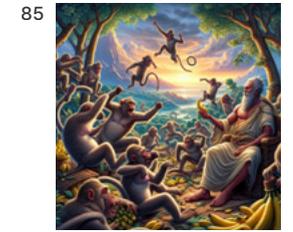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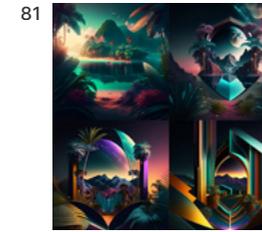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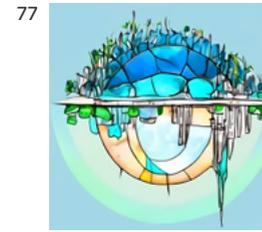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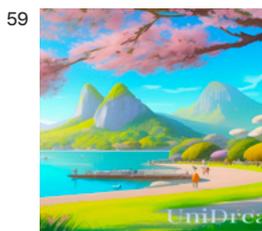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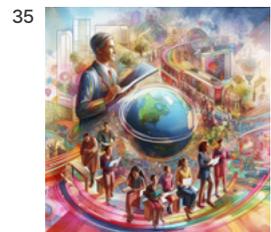
표지 디자인도, 프로필 사진도, 글도 모두 학생들의 작품이다. 이 작업의 과정과 기획에 함께 참여해준 학부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함께 해준 LMNT 박지혜 선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겸임교수

최장순(LMNT Creative Director)

Contents

<My paradise, Not yours>





파랑

곽정인

한국학 2019390467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곽정인, <이상향>, 2023

Prompt

The paradise which is to be a rest for someone, Peaceful and tranquil, A bit of civilization, Like the utopia.

내가 사용한 시 틀은 crayon이며, 처음 내가 'paradise'라는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 쓴 명령어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것이었다. 'paradise which we lost'라는 명령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흔히들 말하는 에덴동산의 전형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해당 명령어가 내포한 부정적 분위기 탓에 의도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물가를 떠올리게 하는 다수의 이미지가 나왔다.

그리하여 나는 몇 가지 비슷한 류의 명령어를 통해 특정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시가 생성하는 'paradise'는 물을 필연적으로 풍경에 담게 된다는 것을. 이러한 결론 아래, 내가 떠올린 것은 동남아시아의 수상가옥과 함께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베네치아'였다. 잃어버린 낙원의 분위기가 절망적이었다면, 물을 비롯한 자연이 함께 하는 인간 문명, 지속 가능한 환경을 추구하되 인간 문명은 유지하는 쪽은 어떨 것인가?

인류의 문명에는 두 번의 낙원이 있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에덴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한 가지일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인류에게 에덴은 실현조차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유토피아를 표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paradise'는 에덴이 아닌 유토피아일 것이다.

이러한 결론 아래 나는 최종적으로 'The paradise which is to be a rest for someone, Peaceful and tranquil, A bit of civilization, Like the utopia'라는 몇 가지 키워드를 조합해 해당 이미지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위의 이미지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해 보자. 보이는 것은 달과 유사하게 생긴 둥근 무언가, 그것을 가리고 있는 구름, 물 위에 떠 있는 유럽식의 건물들과 식물, 아침이라고 추측되는 푸른 하늘 정도이다. 사실 시가 어떠한 의도를 담고 이미지를 도출해 내지는 않으니 기호학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다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고민해 보자면 이항대립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자연물과 인간 문명의 대립은 이전부터 유구하게 있어왔지 않은가.

자연	인간 문명
나무와 풀	돔 형태 건축 양식
아직 달이 떠있는 푸른 하늘	고딕 형태 건축 양식
수면 잔상(잔상을 통해 물임을 암시)	흐릿하게 보이는 현대적 건축 양식
구름? 안개?	인공 섬(수상가옥)

그림 속의 풍경에는 로마의 판테온과 같은 돔 형태를 한 건물이 있는가 하면, 지붕이 뾰족한 고딕 건축 양식을 한 건물도 보인다. 또 구름과 함께 저 너머로는 네모난 모양의 현대 건축 양식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 요컨대 시가 생성해낸 그림에는 인류의 문명이 시간대별로 나열되어 있는 셈이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과거를 존중하고 현재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도모를 통해 미래까지 생각하는 도시의 형태를 나는 'Paradise'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이메일 : kj990921@gmail.com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규입니다.

김동규

언어학 2018131611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김동규, <낙원이 뭐 별거겠어요>, 2023

Prompt

The moment when Buddha realizes liberation from anxiety and anguish.

일반적으로 Paradise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호화로운 바닷가, 진귀한 음식들, 고가의 술들의 이미지를 올린다.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Paradise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상이 아니고, 일상의 탈출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호화로운 휴양지에서 평생을 지내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행복은 그 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호화는 이제 일상이 되어 또 다른, 그 이상의 자극을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Paradise는 어떠한 공간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의 평화, 걱정과 번뇌로부터의 해탈의 순간에서 그 사람의 Paradise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the moment when Buddiha realizes liberation from anxiety and anguish'라는 명령어를 제시해보았다.



배고픈 스무살입니다.

김윤진

미디어학 2023240077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김윤진, <Oasis>, 2023

Prompt

Imagine a hidden oasis paradise in the middle of desert, surrounded by endless dunes, palm trees and bathed in the soft glow of the Milky Way above. The Milky Way and palm trees are reflecting on the surface of the oasis. The tone and color is overall dreamy and mild, using soft lighting.

'Paradise'를 우리말로 옮긴다면 '낙원' 정도가 되겠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전형적인 휴양지의 모습으로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 빛 바다와 백사장 야자수 밑에서 한가롭게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고 여유롭다. 여행사를 포함한 여행객들이 휴양지를 '지상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것이 서구의 'paradise'에 대한 이미지라면 우리 문화에서 낙원은 무릉도원의 이미지이다. 무릉도원의 이미지는 중국 시인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고사를 바탕으로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어부가 낚시하다가 길을 잃어 어느 굴 속으로 돌아갔는데, 그 속에는 마을이 있었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 마을에서의 즐거운 기억을 가지고 어부는 집으로 돌아갈 때 나중에 또 방문할 것을 약속했지만 다시는 그곳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이 장소는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서구의 'paradise' 이미지와 다르게 동양의 무릉도원은 가상의 공간, 관념적인 공간으로 인식 속에 존재하고 있다. 두 이미지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물의 이미지,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 속에서 안정감, 편안함, 만족감을 느끼는 인간 주체가 있다.

'Paradise'라는 대주제를 토대로 어떤 세부 주제를 선정해야 할지 고민했다. 앞서 말했던 동서양의 두 이미지는 신선하지 않다고 생각해 제외했다. 실재하는 공간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했을 때 인공지능이 학습한 자료가 많아 충실하게 구현 할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지구상 존재하는 공간 중 앞서 열거한 'paradise'의 성격을 지닌 곳을 떠올렸다. 그렇게 선정한 것이 사막 속 오아시스의 이미지이다. 우선 무릉도원과 마찬가지로 오아시스는 은폐되어 있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척박한 사막에서 길을 잃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는 여행자가 대뜸 발견해 엄청난 안도감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오아시스이다. 오아시스는 원형적 상징으로서 치유의 의미를 지닌 물의 이미지가 주를 이룬다. 'paradise'는 'utopia'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비현실적, 환상적인 속성 또한 지녀야 한다. 종종 '신기루'가 진짜 오아시스로 오인된다는 점에서 해당 속성 또한 가지고 있다. 인간은 늘 바쁘고 고된 일상을 살며 'paradise'를 고대한다. '고생 끝에는 낙이 오겠지'라는 사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같은 카피가 이를 잘 보여준다. 사막의 여행자가 힘들게 모래를 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가 결국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만족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굳이 은하수가 있는 밤 하늘을 배경으로 설정한 이유는 옛 사람들이 별을 보고 자신이 갈 길을 파악했다는 스토리 개입이 가능하고, 시각적인 감동이 배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사막의 오아시스 이미지는 'paradise'라는 주제를 조금 비틀어서 스토리텔링하기 좋다. 보통 사막 여행은 혼자 가는 것, 고독을 상징하므로 '나만의 작은 파라다이스'라는 컨셉을 도출할 수 있겠다. 오아시스는 바쁘고 시끄러운, 감정적인 소모가 많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혼자 잔잔하게 감동과 위로를 받는 낙원이다.

개인 이메일 : fireyunjan@gmail.com



김정

언어학 2019131610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김정, <모순>, 2023

Prompt

Paradise is a perfect place. But space always changes by time. So, paradise is a space at a certain point in time. If you think about paradise, you will only think of a scene stuffed from one perspective. It is unclear whether that will be paradise even when the timing or perspective changes. Thus, paradise is momentary. And human imagination can think of the concept of a perfect place but cannot create an intact idea about that. Furthermore, even such concepts are not intact. So, the paradise we imagine is not actually paradise. Paradise is unimaginable. Maybe you can imagine a better paradise than that, no matter how perfect it is. So, what you conceive is not paradise. Thus, paradise is unreachable. And paradise is conceptual. We have no choice but to trace paradise as an ambiguous concept. Therefore, paradise is a point that cannot be reached whether practically or ideologically.

해당 이미지는 분석자가 이미지 생성 AI인 Craiyon을 통해 생성한 것이다. 이때, 생성에 쓰인 명령어는 분석자가 구성한 것이고, 그렇게 생성된 여러 이미지들 가운데 해당 이미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것 또한 분석자이다. 따라서, 분석자에게는 해당 이미지를 해석할 선제적 관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분석자는 해당 이미지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이미지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은 무한하게 가능하겠지만, 해당 이미지를 분석할 때, 보다 중요한 중심 논제는 분석자의 직관에 의해 선택된 해당 이미지가 왜 선택되었는지, 즉 분석자의 직관을 해석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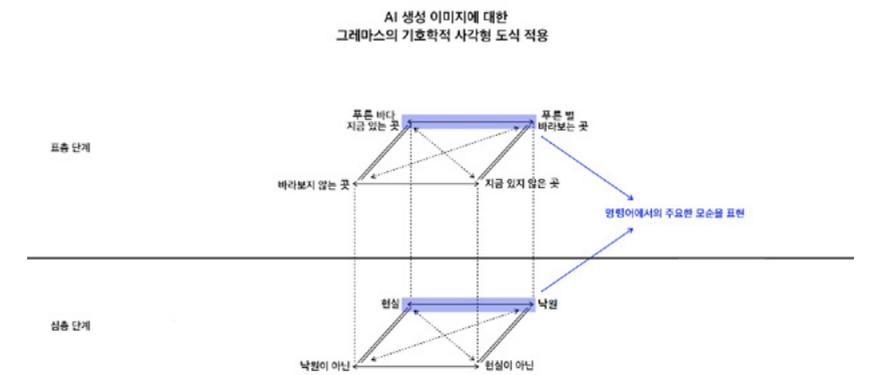
일단 명령어에서 핵심어들을 꼽아보면, 'momentary', 'unimaginable', 'unreachable', 'conceptual' 등을 추려낼 수 있는데 이들은 'paradise'와 연결되어 매우 부정적인 진술을 구성한다. 또한 여기서 도출되는 흥미로운 귀결은 누군가 낙원을 떠올리면 즉각적으로 그것은 낙원이 아니게 된다는 역설이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살펴보면, 해당 이미지는 사람이 하늘 위에 푸르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낙원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어두우면서 경외감이 드는 분위기도 두드러진다.

이때, 이미지에서는 사람의 위치와 시선을 기준으로 지금 있는 곳과 바라보는 곳의 대립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그래머스의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에 대입해본다면 지금 있는 곳, 바라보는 곳, 지금 있지 않은 곳, 바라보지 않는 곳의 네 가지 항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지금 있는 곳은 푸른 바다에 대응하며 바라보는 곳은 푸른 별에 대응한다. 이때 직관적으로 푸른 별을 낙원에 대응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먼저 '바라보다'와 '지향', '추구하다' 등의 의미적 연관성을 들 수 있고, 둘째로 이미지 내 구성요소들의 배치를 정보가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 보통 이상적인 것이 상부에, 현실적인 것이 하부에 배치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따라 자연스럽게 푸른 바다는 현실에 대응하게 된다.

그런데 푸른 바다와 푸른 별은 푸르게 빛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바라보고 있는 낙원이 지금 있는 현실과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미지에서 광원으로서 현저하게 두드러지는 요소도 없다. 푸른 별도 푸른 바다도 비슷한 강도로 빛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장하자면 이미지의 사람은 이미 푸른 별에 있는 것이다. 낙원이 현실과 같다면, 그것은 낙원이 아니게 된다. 푸른 별을 동경

하고 있는 이미지 내의 사람이 만일 푸른 별에 간다고 할 때, 그곳이 정말 저 사람에게 낙원일지는 의심스럽다. 이미지 생성 명령어에서 나타났던 낙원이 낙원이 아니라는 역설은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이러한 역설은 우주적 이미지로 인한 경외감이 드는 분위기와 연결되며 거부할 수 없음을 감각적으로 표현된다.

결론적으로 해당 이미지는 명령어에서 나타난 대립을 인물의 위치와 시선을 통해 시각적으로 묘사한 뒤 공통된 시각소를 통해 둘을 연결함으로써 명령어의 주요 역설을 표현했고 밤과 우주라는 모티프를 통해 부정적이지만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분석자의 주의를 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이미지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감각과 개념의 대립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명령어에서는 해당 대립도 주요하게 드러났지만 시각 이미지의 표현상 한계 때문인지 이미지에서는 그러한 대립을 찾기 힘들다.



한편, 해당 분석 혹은 해당 분석에 이용된 기호학적 분석들이 사후적 해석일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으나, 미학은 원래 경험적 학문이므로 분석틀 혹은 공리는 사후적 해석을 통해 구성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음률이 수학적인 구조를 지니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률을 분석해본 결과 수학적인 구조를 띄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험과학의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반례가 누적되거나 더 나은 설명력을 지니는 이론이 나오면 대체하면 그만이다. 해당 분석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그래머스의 이론은 작품의 의미 구조를 매우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분명 감상자의 직관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유하고 싶은 학부생

김혜원

문화콘텐츠학 2021400407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김혜원, <행복한 사람들>, 2023

Prompt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사진, 어깨동무, 안대로 눈을 가린 상태, 다양한 성별과 나이로 구성된 가족, 백인, 북유럽 인종, 밝고 따뜻한 색채, 인상주의 (Happy smiling family photos, put arms around each other's shoulders, blindfolded eyes, family of various genders and ages, white, Nordic races, bright and warm colors, impressionism)

Negative Prompt

사실주의, 사진, 애니메이션 (Realism, Photography, Animation)

Paradise, 즉 낙원이란 무엇일까? 낙원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하지만 모두가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낙원의 특성은 '행복하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림 속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은 어깨동무를 한 채 행복하게 웃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족사진과는 다르게 모두 안대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은 왜 안대를 두르고 있을까? 눈을 가린 채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은 왜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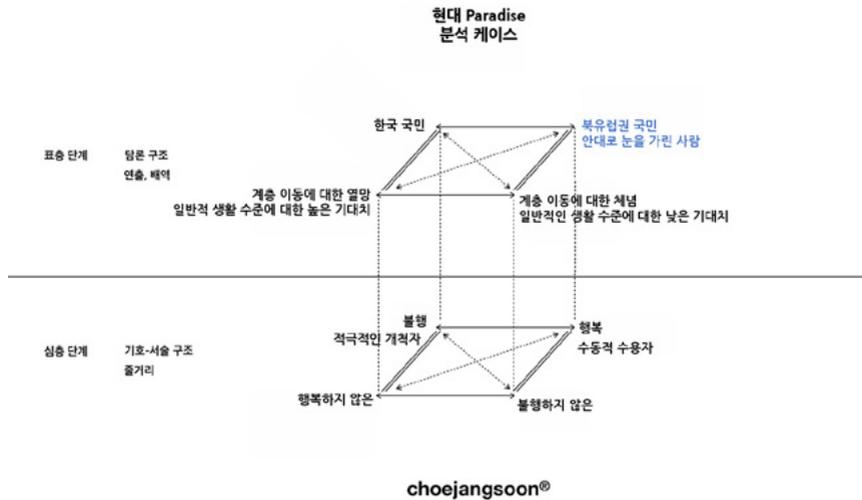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인 '세계행복보고서'는 세계 각 나라 거주민들의 행복을 정량화하여 행복지수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및 시민 사회가 행복에 관한 복지를 평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2023년 3월 20일, 국제 행복의 날의 맞아 발표된 올해의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로 밝혀졌다. 핀란드는 올해까지 총 6년 연속으로 행복지수 1위를 기록하였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로 국가가 모두 상위권을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북유럽권 국가들은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사회, 문화 차원에서 그들만의 특성을 조사해 행복의 비결을 알아내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조사를 통해 오늘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북유럽의 행복비결은 복지와 부유함이 아닌 '라곰(Lagom)'과 '안테의 법칙(Janate's Law)'으로 대표된다. 스웨덴어인 '라곰'은 '틈을 둘러싼'이라는 의미의 '라게트 옴(Laget om)'을 줄인 것으로 적당한, 충분한, 딱 알맞은 등으로 해석된다. 즉 소박하고 균형 잡힌 생활과 공동체와의 조화를 중시하는 삶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소확행'과 비슷한 이 정서는 깨끗한 공기, 숲속 산책과 같은 단순한 즐거움을 최대한 즐기고 삶의 작은 것들에 감탄하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덴마크를 중심으로 북유럽에서 통용되는 개념인 '안테의 법칙'은 '보통사람의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칙은 10개조의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 것 등의 규칙이 있다. 이는 공동체 속에서의 평등을 최우선시하고 경쟁보다는 화합을 중요시하는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방송매체와 책들에서 북유럽 국가들의 정서들을 소개하며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비결을 따라라!'라는 교훈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근본적으로 행복지수란 사람들의 기대치에 기초한다. 즉 자신이 원하는 기대치와 대비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가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SNS를 접하면서부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사람들도 SNS 속의 꾸며진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되면서 우울감에 빠지는 것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SNS의 폐해이다. 그러나 북유럽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 즉, 삶에 대한 기대수준 자체가 낮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안테의 법칙'을 대를 거쳐 주입된 패배주의라고 보기도 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무색해졌다는 현대 한국 사회이지만 여전히 바늘구멍이라도 기회는 있고 사람들은 그 기회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돈을 위해 혹은 지위, 명예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늘 더 나아져야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안테의 법칙'에 따라 보통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아마 북유럽권 사람들은 '갓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는 북유럽권의 문화뿐만 아니라 양극화도 반영되어있다.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수준의 생활'이란 무엇일까? 보편적으로는 내 소유의 집과 차,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잘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과 재력 등을 생각할 것이다. 북유럽권의 경우에는 어떨까? 이들은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수준의 생활'을 원하지 않는다. 애초에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을 것이다. 자가 주택과 교육, 자녀들의 교육을 고려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대수준의 차이란 이런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일반적 수준의 생활'이 충족되지 않는 현 사회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패배감을 느끼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북유럽권의 국민들은 불만을 느끼지도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 삶이란 본래 고단한 것이다. 대충 살아도 잘살 수 있는 낙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 속에서 불행한 삶과 꿈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행복한 삶, 무엇 하나 선택하기 힘들만큼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생성된 이미지는 행복과 불행의 이항대립에서 출발되었다. 그리고 이를 각각 수동적 수용자와 무지, 적극적인 개척자와 지(知)에 대응시켰다. 이러한 요소가 표층 단계에서는 안대로 눈을 가린 사람(무지, 수동적 성격)으로 표현되었다.



즉, 위의 그림은 행복이라는 기준으로 정의되는 paradise에 대한 의구심과 진정한 행복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역설적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의 보다 자세한 해설을 위해 바르트의 기호학 모델을 이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1차 기표	1차 기의(외연적 기의)
그림, 안대, 웃음, 사람들, 어깨동무, 노란색, 붓의 질감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
기호(2차 기표)	
백인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인상주의적 기법으로 표현한 그림	기의(내포적 기의, 2차 기의)
	가족의 행복한 웃음은 그들의 안대에서 기인되었다.
기호(신화)	
문화적 관습을 통해 학습된 그들의 수동적 태도와 보통사람으로 살아가는 미덕을 통해 행복한 나라로 거듭난 북유럽 국가	

개인 이메일: inner-circle@naver.com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사람

미우라 마사코

언어학 2018131628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미우라 마사코, <The Holiday>, 2023

Prompt

밖에 눈이 내리고 앞에 큰 호수가 보이는 네모난 큰 창문과 높은 천장이 있는 방 안에 벽난로와 궁전에서 사용할 것 같은 분위기의 침대, 소파, 테이블, 옷장 등의 가구들이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 and 크리스마스 소품이 가득하고 보면 따뜻함이 느껴지는 휴양지에 있을 법한 리조트 호텔처럼 넓고 높은 곳에 위치한 집

‘파라다이스’는 종교적인 맥락이나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이상적인 혹은 완벽한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접하는 단어의 뜻은 여행과 관련된 의미의 파라다이스, 즉 휴양지나 여행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아름다운 경치를 보거나 느낄 수 있는 장소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겨울과 관련된 휴양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명령어를 입력했고 위에 있는 모습의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처음에 겨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겨울을 상징하는 눈이 떠올랐고 그것을 예쁘게 담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어를 입력할지 생각했을 때 숲이 생각났지만, 크리스마스 트리와 겹치는 느낌들이어서 호수로 변경했고 눈은 만지는 것보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장소는 방으로 정했고 눈이 뜨이는 풍경을 위해 큰 창문과 높은 천장을 입력하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차가운 눈을 볼 때 머무르고 싶어지는 따뜻한 분위기의 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벽난로와 크리스마스가 함께 생각이 났고 방에 배치하고 싶은 나머지 가구들을 입력했다. 궁전에서 사용할 것 같은 분위기의 가구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평소에 접하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이 더 환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큰 방을 생성하기 위해 ‘호텔처럼 넓고 높은 곳에 위치한다’라고 입력하게 되었다.

나는 ‘파라다이스’의 정의를 보고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를 찾는 이유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했고 이미지에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견하였다. 그 요소들을 하나씩 해석하자면 먼저 눈이 내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순수함, 새로운 시작, 차가움, 정화를 상징하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고 큰 호수는 깊이, 미지의 영역, 내면적인 감정 등을 상징할 수 있으며, 큰 호수가 보이는 것은 내면의 깊은 감정에 대한 집중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큰 창문은 개방성, 외부와의 연결을 상징하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을 나타낼 수 있다. 벽난로는 따뜻함, 안정감, 안식처, 가정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며, 편안한 공간을 나타낼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트리와 크리스마스 소품은 축제, 기쁨, 공동체, 가족과의 연결을 상징하며, 이 시기는 함께 보내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을 의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휴양지, 즉 리조트는 휴식, 재충전, 특별한 순간, 휴가의 개념을 나타내며, 이것은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어진 장소는 심리적으로 휴식과 정화를 원하는 사람, 희망적인 미래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사람, 내면의

깊은 감정을 탐구하려는 사람에게 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평온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장소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개인의 감정과 역량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지의 여러 요소들은 각자 다른 사연이 있어도 결국은 마음의 평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파라다이스’는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이라는 뜻 가지고 있으며 파라다이스의 동의어는 ‘천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는 곳이지만 가지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호학 사각형 틀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현실적과 비현실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과 대립하는 관계인 존재, 우리가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환상적, 비현실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 이메일 : pinkim1117@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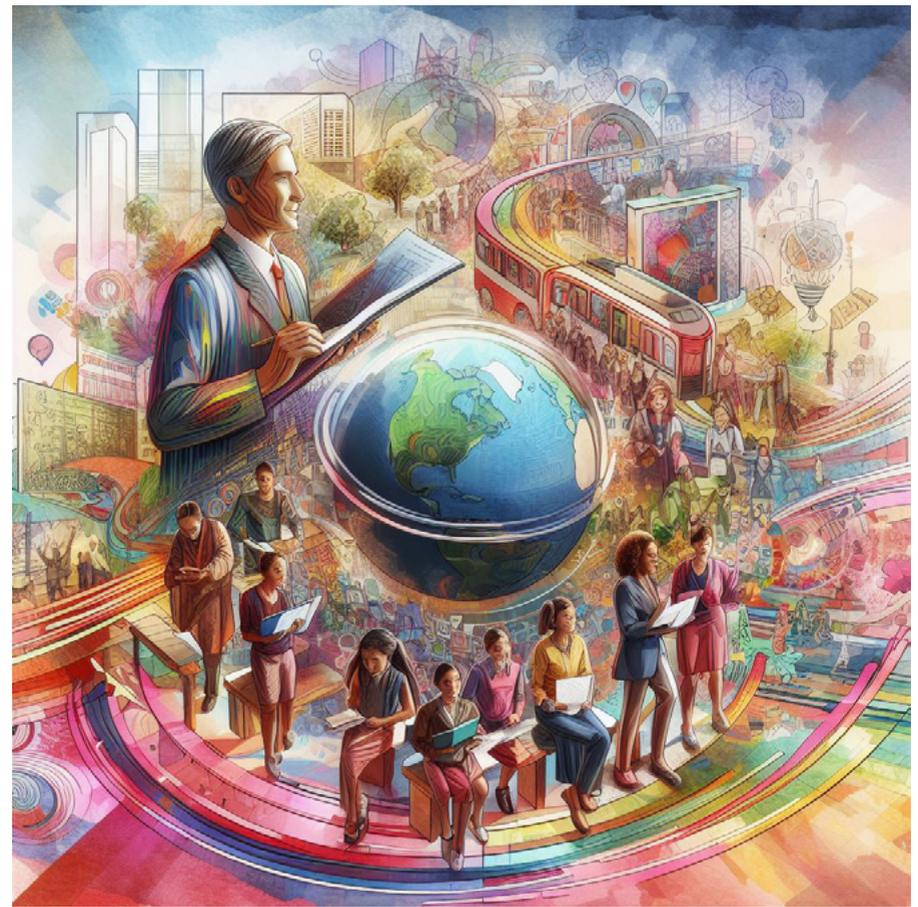


존재 목적을 찾아 나가는 사람

민세홍

글로벌경영학 2018390569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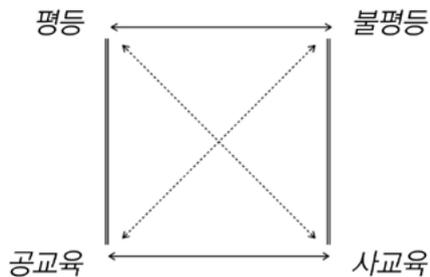
민세홍, <The Future of Education>, 2023

Prompt

Expressing the future educational scene in pictures, The background of various modes of transportation, Teacher focusing on education appears, Appearances of students learning a wide range, Visual representation of an equal society on which freedom and rights are based, Expressing a community that mingles and cooperates with each other, Use colorful colors like rainbows

대한민국에 다양한 사회문제가 존재하지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제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교육불평등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문제이며 최근 교권 추락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현장을 이분법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격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공교육과 사교육,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유층과 빈곤층, 교과와 비교과, 현 사회를 바라보는 이분법인 평등과 불평등, 지금은 경계를 없애기 위해 제도들을 개편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문과와 이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디지털의 등장과 빠른 발전으로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 또한 존재하지만 대치동과 같이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을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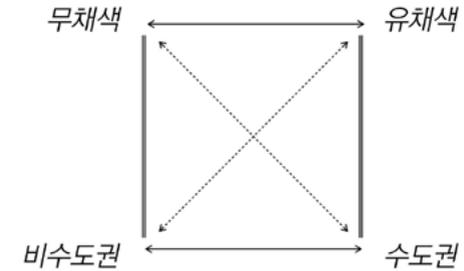
이미지 제작을 위해 사용한 기호사각형은 다음과 같다. 한 사회 내에서 평등과 불평등은 공존하기 어려운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은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공익을 지향한다. 한편 사교육은 공교육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나라가 관리하는 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을 일컫는다.



<그림 1>. 이미지 제작을 위한 기호사각형

공교육은 모두가 누릴 수 있기에 평등이라는 개념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사교육은 교육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일부 또는 매달 사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교육이기에 불평등을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논리일 수 있지만 무지의 베일, 즉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장래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려면 지위나 재화 배분에서 어떤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2>. 이미지 해석을 위한 기호사각형

이미지 제작을 위해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 끝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흑과 백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간편했지만 막상 이미지를 제작하고 보니 의도한 부분을 표현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흑과 백이 아닌 무채색과 유채색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제작하였으며 무지개와 같은 다양한 색상 사용을 통해 다양성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다.

다양한 교육 경로 제공으로 접근성을 높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본다면 교통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시각으로 색상 구분을 위해 명칭을 붙이긴 하지만 사실 연속선상인 색채를 활용하여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교통이 편리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수도권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파라다이스로 여겨지는 나라나 지역을 평가하는 데에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양하게 작

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치 무지개와 같은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한다면 주제에 적합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명령어 수정을 거듭해 최종적으로 채택하게 된 이미지는 앞과 같다. 다양한 생성 이미지 중에서 해당 작품을 채택한 이유는 가운데에 그려진 지구본 때문이었다. 지구 주위에서 책을 들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기차길을 활용하여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 채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떠오르는 문제인 교권 추락 문제도 다루고자 했는데 한 인물을 크게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을 바른길로 이끌기 위한 교사의 필수적인 권위를 나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정렬되지 않은 인물들을 통해 자유로움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개인 이메일 : msh4576@naver.com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경험 디자이너

박예진

언어학 2020131605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박예진, <환상>, 2023

Prompt

Draw 'Paradise' with Kandinsky's work as a motif. Please include a large sense of space, sunny weather, and happiness.

Negative Prompt

Bad anatomy, bad hands, cropped, worst quality

나에게 paradise란 내가 사는 세계와 동떨어진 것으로, 감히 그려낼 수 없어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paradise에 대한 실제적인 묘사보다는 추상적인 묘사가 담긴 이미지를 얻고 싶어 평소 좋아하는 추상 화가 칸딘스키의 작품을 모티브로 그릴 것을 요청했다. 추가로, 내가 paradise라고 느끼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3가지를 떠올렸고, 넓은 공간감, 화창한 날씨, 그리고 행복감을 함께 표현하도록 명령했다.

생성된 이미지를 살펴보면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조형 요소, 그리고 붓의 터치감이 칸딘스키의 화풍을 떠오르게 한다. 하지만 기존 작품과의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는데, 사용된 색상의 채도가 높고 선명하며 직선과 곡선이 혼재하지 않고 곡선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추가로 명령한 3가지 요소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크게 배경과 주제부로 구분하여 보면, 배경을 구성하는 것에는 왼쪽 상단의 태양과 같은 존재, 공간을 이루는 푸른 바탕, 우측 상단에 넓게 빠진 무지개 형상의 곡선과 구름 형상, 그리고 하단의 흐르는 물과 같은 곡선이 있다. 주제부로는 왼쪽의 폭죽과 꽃을 연상시키는 표현체, 오른쪽의 큰 광원과 같은 동심원, 그리고 하단에 꽃과 꽃잎 같은 붓 터치를 발견할 수 있다.

넓은 공간감은 주로 배경의 곡선에 의해 표현되었고, 화창한 날씨는 전반적인 색채와 광원, 그리고 생명력이 느껴지는 자연물(꽃)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행복감 또한 색채와 왼쪽의 폭죽 형상의 표현체, 꽃잎 혹은 폭죽으로 연상되는 붓 터치를 통해 축제의 분위기를 빌려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반원 형태의 조형요소나 곡선 또한 미소 짓는 눈매와 입꼬리를 상기하게 하여 행복감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흥미로웠던 점은 색채와 선이 구성하는 각각의 시각 담화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우측의 '무지개'를 닮은 넓게 펼쳐진 선 형태의 표현체와 '광원'으로 언급한 동심원 형태의 표현체가 각각 공간감과 맑은 날씨(태양), 즉 서로 다른 것을 상징하지만 둘은 모두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이어지는 색채와 곡선형으로 이루어져 상동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확장하면 배경과 주제부가 세 요소를 바탕으로 'paradise'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 이메일 : pyj1523@naver.com



유쾌하게 살래요

박유빈

건축학 2016170511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박유빈, <도파민 중독>, 2023

Prompt

Dopamine Addiction Heaven, paradise, drug poison opens in a tree, the fruit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of evil) as dope, highly advanced in science, Advanced technology

Negative Prompt

Atmospheric

처음 천국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모순적이게도 지옥이었다. 그리고 이 상반된 듯 보이는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선악과'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저마다의 선악과가 존재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중 하나가 '도파민'이라고 생각한다.

도파민(Dopamine)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일종으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전구체이다. 도파민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호르몬으로, 인간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해주고, 성취감과 보상감, 쾌락의 감정을 느끼며, 인체를 흥분시켜 살아갈 의욕과 흥미를 느끼게 한다. 세로토닌과 함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멋진 옷을 입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며, 여행을 가거나, 업무 성과를 달성하거나, 좋은 음악을 들을 경우에도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리고 포르노, 술, 담배, 약물 및 오락 등도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킨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며 얻는 건강한 도파민 분비 정도는 마약 등의 행위로 얻는 도파민 증가를 절대 뛰어넘지 못한다. 마약이 일시적으로 도파민 분비를 늘려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줘도 불구하고, 인체는 항상 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려 하므로 의존증의 문제가 발생한다.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그와 비례하여 도파민 수용기가 줄어드는데(Down-regulation), 도파민에 대한 감수성을 낮추기 위함이다. 그래서 도파민 재흡수 억제제와 촉진제를 남용할 경우, 도파민 수용기가 마구잡이로 파괴되어 약물의 효과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도파민 분비 체계가 망가져 우울증을 유발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행복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는 마약 중독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이다. 도파민 수용체가 망가진 마약 중독자들은 약물을 복용, 투여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행복이나 보상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며, 결국 더 많은 양의 마약에 의존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약 문제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며, 과연 진정한 Paradise에 대해 고민해봤다.

도파민 중독 상태의 인간은
과연 천국에 있는걸까? 지옥에 있는걸까?

이 질문으로 생성하게 된 AI 이미지는 도파민 중독을 첫번째 프롬프트로 설정했고, 마약이 선악과 나무에서 열리는 모습을 만들었다. 고도화된 사회에서 모든걸 만들어냈음에도 의자에 묶여 약물 중독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다.

저 인간은 천국에 있어 보이는가? 아니면 지옥에 있어 보이는가?

어긋난 개인의 paradise를 좇는 세상이 지속된다면 결국 인간은 약물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고도화된 세상에서 과거로 회귀하여, 현실세계에서는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두번째 이미지를 생성했다. 저 인간들은 천국에 있는걸까?



개인 이메일 : ubin616@naver.com



유유자적 선비



배소혜, <사과>, 2023

배소혜

영어영문학 2023130875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Prompt

Let's think step by step. Film still, shot of an apple in heaven which functions as a ticket for entering hell. Wide shot, colorful. It must be showing the conspicuous difference between the splendid heaven which is the background, and hell which is shown a little inside of the apple.

먼저 주어진 주제인 Paradise가 어떤 개념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는데, 천국과 동의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직관적으로 떠올리듯 천국이라는 개념과 정확히 대립되는 지점은 지옥이다. 그리고 천국으로부터 연상되는 또 다른 상징으로는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이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항대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천국에 심어져 있는 선악과 나무는 보통 성경이 보급된 지역에서 가장 흔한 과일 나무로 상징된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무화과 나무로 표현되는데,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과나무로 표현된다. 이 사과나무는 천국을 상징하는 모티프이지만, 평화롭던 세계에서 악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양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천국에 죄악을 들이고 지옥의 문을 여는, 모든 불행의 씨앗이 바로 사과인 것이다.

선악과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우선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의 구분이 생긴다. 악이라는 개념의 등장을 통해서 원래는 보이지 않았던 선이라는 개념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단위는 이항 대립을 통해 의미를 가지고, 다른 용어와의 상호적인 관계, 그리고 구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 안에서 정의된다. '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분함으로써 각각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종의 도구로 기능한다.

이렇게 불안한 잠재력을 갖는 사과나무가 아름답고 무결한 천국, 즉 Paradise에 심어져 있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그래서 나는 Paradise는 모순의 공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영원한 행복의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된, 불안과 동요의 공간인 것이다. 또한 사과를 한 입 베어무는 것은, 악의 발견으로 무지의 행복을 끝낼 최초의 행위다. 말하자면 배부른 돼지에서 배고픈 소크라테스로의 이행, 앎에 대한 욕망이 이끌어낸 고통이자 환희다. 인간은 앞으로 다가올 복잡한 현실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앎을 추구했다. 사과를 욕망하는 일은 지옥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보다 호기심이 더 큰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Paradise가 품은 사과는 불안함인 동시에 두근거림이다. 선악을 구분하는 사과는 그래서 선하거나 악한 존재로 볼 수 없다. 인간에게 있어 '앎'이 그러하듯 말이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을 대략적으로 구상했고, 달리 3에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 결과물을 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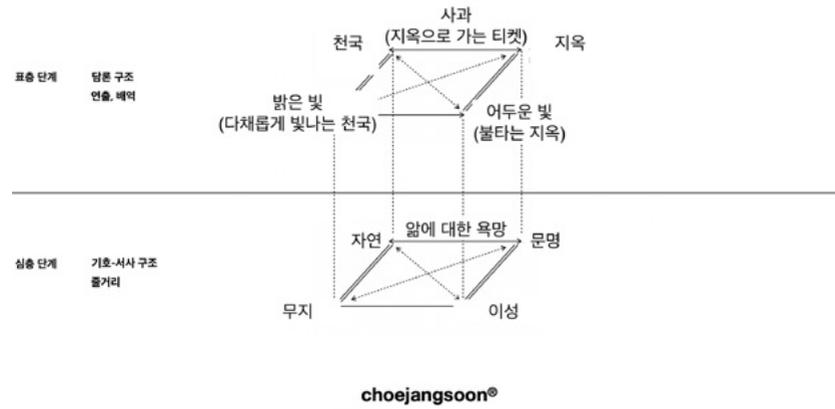
Let's think step by step. Film still, shot of an apple in heaven which functions as a ticket for entering hell. Wide shot, colorful. It must be showing the conspicuous difference between the splendid heaven which is the background, and hell which is shown a little inside of the apple.

명령어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법을 알아보던 중 흥미로웠던 점은,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라고 말하면 시가 약 네 배 정도 더 정확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는 문장을 넣었다. 먼저 천국을 배경으로 중심에 사과를 그렸고, 이는 지옥으로 가는 티켓으로 기능한다는 설명을 적었다. 사과 안으로 언뜻 보이는 지옥의 형상은 배경의 화려하고 빛나는 천국 이미지와 현저한 대비를 보이도록 명령했다. '막연하게 천국과 지옥의 경계인 사과나무를 표현하라'는 주문을 하면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지옥으로 가는 티켓은 천국에 있다."라는 문장으로 구체화하여 시현을 맡겼다.

이번 과제를 통해 내가 느낀 시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럴 듯하게' 꾸며내는 데 있었다. 천국과 지옥이 한 화면에 조화롭게 공존하는 탈맥락적인 상황, 그리고 한 입 베어 문 사과 안에 지옥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시는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도 보였다. 지옥으로 가는 티켓이라는 단순한 내용은, 문자를 뭉뚱그려 그림의 일부만으로 보는 시들의 특성으로 인해 스펠링과 문법이 엉망인 글로 쓰여 있었다. 최종 명령문을 입력하기 전 시도했던 결과물에서는 오랫동안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는 시가 온갖 클리셰와 오래된 상징, 편견들을 반영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창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원한다면 반드시 인간인 우리가 충분히 작품의 내용을 구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주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 시에게 지나친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Paradise라는 주제에서 출발한 여러 상징물들에 대한 고찰과 서사 구성, 그리고 시들을 활용한 작품 제작의 과정은 그 단계 하나하나가 뜻깊었고, 그동안 배운 기초학적 지식을

갖고 씨름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작은 모티프 하나에 담긴 뿌리 깊은 서사가 지닌 매력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개인 이메일 : cldy55428@gmail.com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

손정민

전기전자공학 2023170918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손정민, <It was>, 2023

Prompt

Generate an image with a black background featuring an hourglass. In the upper chamber of the hourglass, construct a paradise made of sand with people. Simultaneously, depict sand flowing down into the lower chamber. The people in the lower chamber should be looking up at the paradise in the upper chamber. 4K

파라다이스는 고통과 불안이 부재하고 행복만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보통 파라다이스를 연상하면, 최고급 호텔이나 종교적 의미의 천국, 에메랄드 빛 바다의 휴양지를 떠올린다. 이러한 연상 이미지들은 순간을 포착한다. 하나님의 나라, 개인 수영장과 여러 개의 방이 딸린 객실은 시간의 차원이 결여된 삼차원 공간이다. 과연 그러한 공간에 시간의 차원이 더해져도 여전히 파라다이스일 수 있을까?

인간의 보상회로는 적응하는 성질이 있다. 적응 현상이 진행되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 세포막 표면의 신경전달물질수용체와 이에 따르는 신호의 특성 때문에, 같은 보상(쾌락)이 주어지려면 자극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자극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면 쾌락의 정도는 점점 감소하다가 일상적 수준까지 내려간다.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파라다이스가 아무리 환상적이어도, 우리의 뇌는 이에 적응할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쾌락의 정도는 일상적 수준으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파라다이스는 개념적으로 더 이상 파라다이스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시간 축이 추가된 파라다이스가 붕괴되는 이미지를 떠올렸다.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은 Bing image creator을 이용했다.

“Generate an image with a black background featuring an hourglass. In the upper chamber of the hourglass, construct a paradise made of sand with people. Simultaneously, depict sand flowing down into the lower chamber. The people in the lower chamber should be looking up at the paradise in the upper chamber. 4K”

이미지가 일반적인 파라다이스의 연상 이미지와 너무 동떨어지지 않길 원했다. 익숙한 파라다이스의 이미지에 낯설을 더해 이미지 자체로 신선하고 힘찬 인상을 주려고 했다. 다음으로, '시간의 축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고민했다. 시간은 정신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면 상징을 이용해야 했다. 모래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면서도, '시간에 따른 상실, 소멸'이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의 구상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요소였다.

이미지의 서사는 다음과 같다. 파라다이스에 도달한 남자는 영원히 보장된 것 같은 행복에 기뻐한다. 사랑하는 연인과 아름다운 해변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즐긴다. 모래는 천천히 아래 칸으로 떨어지고 있다. 남자는 모든 것이 새롭던 파라다이스가 점차 익숙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행복하긴 하다. 점차 모래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옆에 앉은 연인보다 건너편에 걸터앉은 여인이 더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고, 수영은 식상하다며 하이킹을 떠난다. 모래는 폭포처럼 떨어지기 시작한다. 남자는 더이상 이 공간, 이 상황이 특별하지 않다. 해변은 해변일 뿐이고, 사랑은 그저 사랑일 뿐이다. 그는 순식간에 모래와 함께 모래시계의 아래칸으로 떨어진다. 그는 모래산의 꼭대기로 올라가 그가 머물던 파라다이스가 붕괴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나타나 이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어주길 간절히 기도한다.

'진실된'과 '허상의' 라는 두 요소의 이항 대립, 이와 모순 관계인 '진실이 아닌'과 '허상이 아닌'의 이항 대립이 심층 단계에서 서사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아래칸으로 떨어지면서 파라다이스라는 공간의 허구성을 목격한 남자는 파라다이스의 '진실된' 실상을 확인했지만, 또다시 동일한 파라다이스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진실이 아닌' 행복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윗칸에서 파라다이스를 만끽하는 이들은 시간 개념이 결여된, 즉 '허상의' 파라다이스를 믿고 있지만, 적어도 그들이 이 순간 느끼고 있는 행복은 '허상이 아닌' 실체이다. '진실'을 인식하는 이는 '진실이 아닌' 행복을, '허상'을 인식하는 이는 '허상이 아닌' 행복을 체험하는 구조인 것이다.

개인 이메일 : sjm020730@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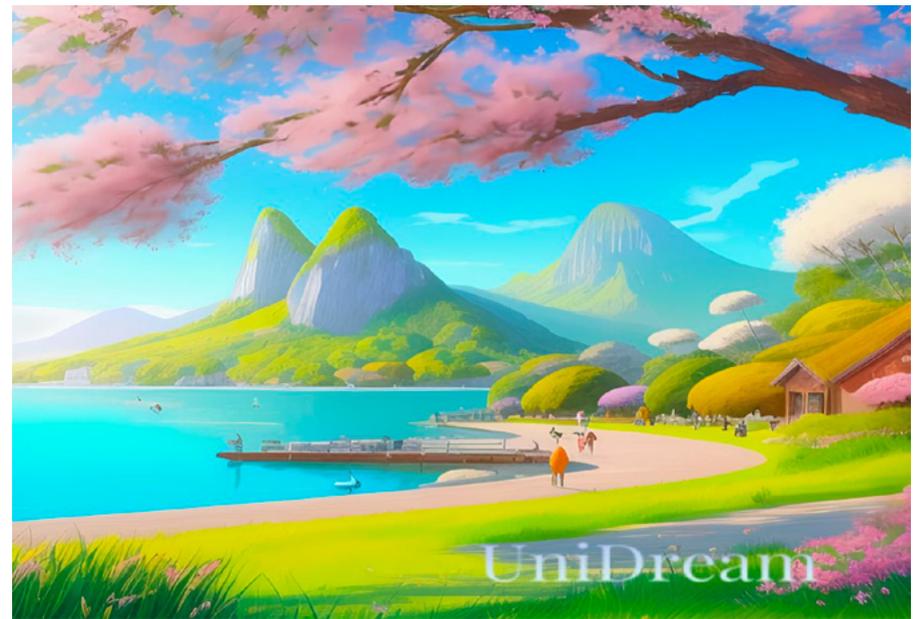


닭한마리와 스시를 먹고 싶은 사람

야마모토 나오

언어학 2018131642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야마모토 나오, <평화스러운 내 낙원>, 2023

Prompt

人間にとってのパラダイス、アート スタイル ジブリ風、美しい水辺、明るい色、楽しい雰囲気、美味しい食べ物、静かな場所、綺麗な場所、緑や水色をベースに、お花がたくさん咲いている、春のイメージ、平和、オセアニア、動物

인간에게 있어서 paradise, 아트 스타일 지브리, 아름다운 수변, 밝은색, 재미있는 분위기, 맛있는 음식, 조용한 곳, 아름다운 곳, 녹색과 하늘색을 기본으로, 꽃이 많이 피우고 있다, 봄의 이미지, 오세아니아, 동물

먼저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벚꽃과 분홍색 꽃, 3가지 산과 식물들, 그리고 수변과 집이다. 색상은 전체적으로 밝고 명령어대로 녹색과 하늘색을 기본으로 그려져 있다. 수변 근처에는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을 퍼스의 기호현상 3가지와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 이 그림은 일부 추상적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는 점도 있지만 여기서 interpretant는 'paradise', object는 녹색과 하늘색을 기본으로 그려진 산과 수변의 그림, representamen은 AI로 생성된 그림이다. 그리고 denotation은 위에서 나열한 것들이다. 이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connotation은 '자연이 풍부한', '아름다운', '봄', '도시가 아닌 곳', '기계적이지 않은' '평화' 정도가 됐다. 여기까지를 바탕으로 이 그림에서 나타난 의미작용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paradise' 즉 '낙원'은 전쟁이나 싸움, 고통, 고민, 오염 등이 떠오르지 않는 자연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곳이고 반대로 빨간색이나 기계는 싸움이나 경쟁, 현대적인 규칙이 많은 사회생활을 상기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낙원은 평화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또 이 그림이 우리가 서울이나 도쿄, 뉴욕 등 사람들이 집중된 곳과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상을 보내고 있는 현대 생활은 낙원이 아니라는 사고를 의미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 리포트에서 생성된 그림의 'paradise'의 개념은 현대 도시 생활과 떨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내가 AI에 명령어를 내서 만들어진 것이라 물론 모든 사람에게도 이 그림과 비슷한 작성물이 나온다고는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paradise'를 평화나 자연보다 오락이 많다고 생각해 게임이나 텔레비전이 있고 과자가 많은 방이 생성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paradise'는 종교적인 의미로 천국이라고 생각해 천사가 그려질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경제적인 불안과 걱정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생활을 떠올리게 하지 않은 이미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그림이 작성되었다.

이 과제를 통해 나는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이나 느낄 수 있는 의미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알게 되었다.

개인 이메일 : naoyamamoto4@gmail.com



언젠가 빛나고 싶은 예술가

오노유리카

언어학 2020131640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오노유리카, <정취>, 2023

Prompt

夏の真っ盛りの夜に開催される日本の伝統的な花火大会。華やかで鮮やかな美しく打ちあがる花火に、人々は見惚れ感動している。地上では夏祭りの屋台が立ち並び、かき氷やわたがし、金魚すくいなどを楽しんでいる。

한 여름 밤에 열리는 일본의 전통적인 불꽃놀이 대회(축제). 화려하고 선명히, 아름답게 올라오는 불꽃에 사람들은 넋을 잃고 보며 감동을 받고 있다. 그러한 하늘을 배경으로 지상에서는 나츠마츠리(여름 축제)의 포장마차집들이 세워 빙수나 솜사탕, 금붕어 잡기 등을 즐기고 있다.

이미지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우선 Paradise라는 단어에서 고향이 생각이 났고, 일본에서 여름 철에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는 전통적인 불꽃놀이 대회와 여름 축제(마츠리)가 생각났다. 일본 여름은 몹시 더우며, 밤에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마츠리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낙원처럼 여긴다고 생각한다. 이 마츠리는 원래 신을 모시는 종교적 행사였지만, 현재는 전통적인 일본의 한 문화가 되었다. 여기서 특히 이 “불꽃”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기호사각형을 이용하면 전통과 현재, 실체와 가공(架空)으로 성립될 수 있다. 전통 포장마차, 신사와 높은 빌딩이 공존하는 행사 장소는 전통과 현재의 대립 관계에 해당하며, 현장에서 진행되는 마츠리의 현재-여기 개념과 불꽃에 없는 물질성은 실체와 가공의 대립관계를 연상하게 만든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한 명령어

한 여름 밤에 열리는 일본의 전통적인 불꽃놀이 대회(축제). 화려하고 선명히, 아름답게 올라오는 불꽃에 사람들은 넋을 잃고 보며 감동을 받고 있다. 그러한 하늘을 배경으로 지상에서는 나츠마츠리(여름 축제)의 포장마차집들이 세워 빙수나 솜사탕, 금붕어 잡기 등을 즐기고 있다. (원문: 夏の真っ盛りの夜に開催される日本の伝統的な花火大会。華やかで鮮やかな美しく打ちあがる花火に、人々は見惚れ感動している。地上では夏祭りの屋台が立ち並び、かき氷やわたがし、金魚すくいなどを楽しんでいる。)

작품 설명

낙원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개인 안에 있다. 사전적 정의가 있으나, 낙원이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다.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소소한 일상 속에 있으며 익숙한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작품에 담아 보았다.

개인 이메일 : t.o.peppe12@gmail.com



잠깐 쉬고싶습니다

유시지

디자인조형학 2019220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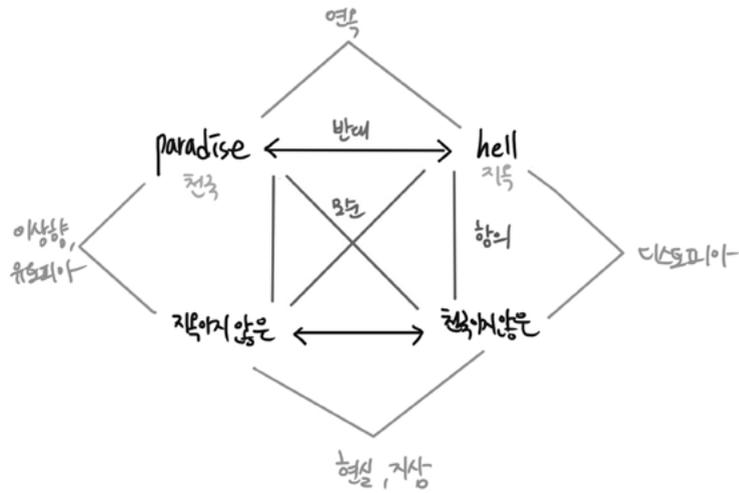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유시지, <Ideality is reality>, 2023

Prompt

Please draw Adam and Eve playing inside a garden surrounded by a wall, like a pairi-daeza. Adam is wearing a hoodie with the Nike logo and holding a Starbucks coffee. Eve is wearing a mini dress and using an iPhone. Please illustrate it in the style of a Renaissance oil painting.



Paradise의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 기호사각형 모델을 이용하였다. 이때, *Paradise의 의미를 (일부 종교에서의) 천국으로 해석하였다. *Paradise의 어원은 고대 페르시아어 'pairi(주변)'와 'daeza(담)'의 결합에서 파생한 파이리다에자(pairi-daeza :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다. 이 말이 그리스어 'paradeisos(왕실 정원)' 다시 라틴어 'paradisus'로 발달되었다. 이 단어가 고대 불어로 유입되어서 'paradis(천국, 이상향)'가 되었고 영어의 '파라다이스(paradise)'로 정착되었다.

같은 의미의 말로서 천국을 뜻하는 아담과 이브가 뛰어놀다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쫓겨난 성서 속의 에덴동산이 있다. '에덴(Eden)'의 어원은 수메르어 'eden(나무가 없는 초원, 정원)'에서 온 단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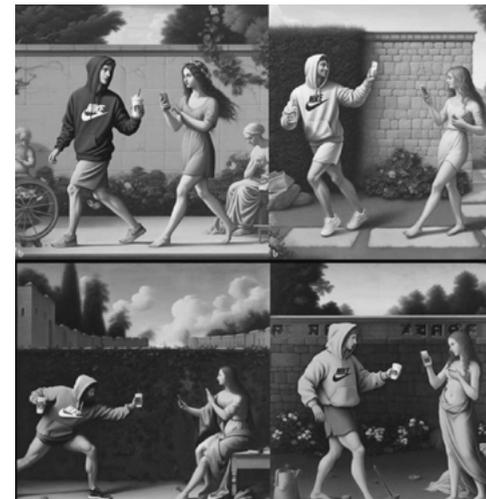
반대되는 관계는 Hell 지옥이다. 두 항의 모순 관계로 '천국이지 않은, 지옥이지 않은'이라는 추가 가치를 얻었다. 최초의 이항대립(천국, 지옥)에서 네 가지 가치 항을 얻었다. 이후 네 가지 항들은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로 드러나기도 하며, 각자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새로운 의미로 고정되기도 한다. 천국과 지옥이 결합하면, 이의 중간 지점인 연옥(煉獄): 세상에서 죄를 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에 의해서 죄를 정화한다고 하는, 천국과 지옥

과의 사이에 있는 상태 또는 장소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천국이지도 않고, 지옥이지도 않은 곳은 '현실 또는 지상'으로 의미화된다. 현실에서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인 유토피아, 즉 이상향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모습의 가공 세계는 디스토피아이다.

이렇게 기호사각형을 통한 paradise 분석을 통해 지옥이지 않은, 천국이지 않은 곳은 '현실'이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 '니체의 말'에서 나왔던 구절을 인용해 보았다. '현재의 세상과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는 이유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망상하며 현실을 도피해놓고, 결국은 현세를 초월했다고 믿는 행동은 하지 마라.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지 마라, 종교든 예술이든 이 세상에서 싹을 틔웠다. 당신 또한 다르지 않다.'

명령어: Please draw Adam and Eve playing inside a garden surrounded by a wall, like a pairi-daeza. Adam is wearing a hoodie with the Nike logo and holding a Starbucks coffee. Eve is wearing a mini dress and using an iPhone. Please illustrate it in the style of a Renaissance oil painting. (<https://www.bing.com/create> 사용)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지 마라”

Paradise의 어원은 고대 페르시아어 'pairi(주변)'와 'daeza(담)'의 결합에서 파생한 파이리다에자(pairi-daeza :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다. 그림 속의 배경은 파이리다에자,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다.

파라다이스는 천국을 뜻하며, 천국은 성경 속에 등장한다. 그림 속에 등장한 아담과 이브는 성서의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남녀로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들의 거처인 에덴동산에서 내쳐진다. 이들은 인간의 원죄 의식을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시기에는 중세의 신 중심 사회 안에서 교회의 권위 아래 억눌린 인간성을 해방해 인간 중심 사회로 변화한다.

낙원에서 쫓겨난 그림 속 아담과 이브는 현실을 상징하는 나이키 옷, 스타벅스 커피, 아이폰을 사용하며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 즉 파라다이스에 존재한다. 이는 현세를 초월하는 천국과 지옥 개념 모두 현실에 기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르네상스 화풍을 사용하여 인간의 Paradise는 현실에 존재한다는 의미도 포함했다.

개인 이메일 : ysj7815@naver.com



자유롭고 싶은 개인

윤이상

언어학 2015131511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윤이상, <창조>, 2023

Prompt

인류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었다. 육신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인류는 생물체로서 종속되는 본능적인 욕구로부터 해방되었다. 인류는 더 이상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자연을 파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인간이 초월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숲은 울창해지고 물은 맑아졌으며 공기는 상쾌함을 되찾았다. 더 이상 말초적 쾌락을 탐하지 않게 된 인류는 부와 권력을 탐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계급 구조는 해체되었고 누구나 평등하게 되었다. 인류는 보다 깊이 타인의 정신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모두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인류는 이제 물질에의 탐욕을 멈추고 삶과 행복의 본질에 대해 보다 깊이 사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윽고 세상에 행복과 평온이 가득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지게 된다.

구름 위로 솟아오른 산 정상에 한 인간이 팔을 벌린 채 서 있다. 성운이 거대한 고리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가운데 밝게 빛나는 우주와 별이 보인다. 인간의 몸 속에는 배경의 우주와 별개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우주가 존재한다. 이 우주는 배경의 우주보다는 어두우나,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존재한다.

- 위의 내용을 기표로 설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산의 정상이라는 이미지는 정복, 혹은 도달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인간이 산의 정상에 섰다는 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인간을 구속하던 제약을 정복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양 팔을 벌린 자세가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한다.
- 다음으로 배경의 우주에 고리 형태로 형성된 성운은 인간을 가운데에 배치하는데, 이를 통해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존재한다는 기의를 전달한다. 또한 중세-르네상스 시대 성화(聖畵)를 다수 관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을 둘러싼 성운의 고리는 성인들의 상징인 헤일로로 연상시키는 푼크툼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성운의 가운데 존재하는 밝은 우주는 빛이라는 기표를 통해 초월적 진리라는 기의를 제시한다. 또한 인간의 팔을 벌린 자세는 밝은 우주와 결합되어 진리의 이해라는 키워드로 변화하고 이는 곧 초월로 해석된다.
- 인간의 몸 내부에 펼쳐진 우주는 소유주를 직관적으로 떠오르게 한다. 인간 몸 내부의 어두운 우주와 배경의 밝은 우주가 대조를 이루며 대우주와 소유주의 만남과 연결이라는 해석체가 만들어진다.

개인 이메일 : sharkpang3@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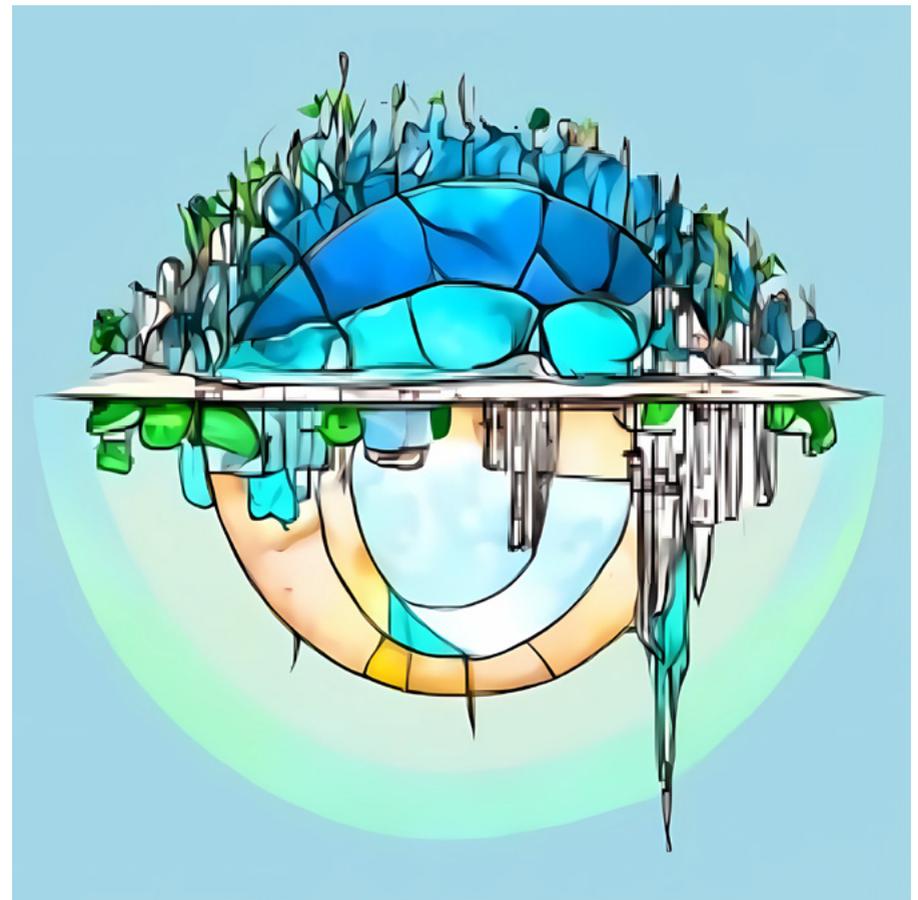


Ideal Me

이상미

통계학 2019150408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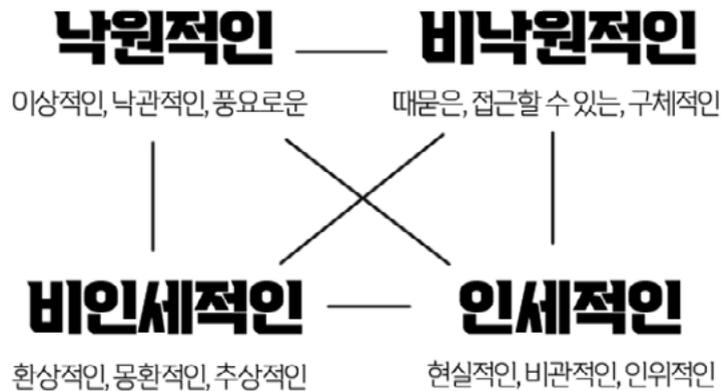
이상미, <창조>, 2023

Prompt

stained glass style, island with plants surrounded by water which surface is reflecting the cityscape

파라다이스 즉 낙원에 대한 자료는 무척이나 방대했다. 같은 기독교적 해석 내에서도 천국과 동의어인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가 상이하였다. 따라서 파라다이스의 기원과 어원을 먼저 확인해보았다.

Paradise(이하 낙원)의 어원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담장을 치고 여러 식물을 기르는 너른 정원이라고 한다. 이 어원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낙원이 전달하는 풍요로운 이미지가 다양한 식물이 주는 생명력에서 기원하였다고 설정하였고, 심플하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압축할 수 있었다. 낙원이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이항대립 구조를 연상시킴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엄청난 낙관은 곧 엄청난 비관도 존재함을 함의하며, 낙원 속의 풍요, 번영, 행복은 곧 빈곤, 기근, 불행과 대립한다. 낙원은 또한 다양한 문화권과 종교에서 현세와 단절되거나 현세를 초월한 일종의 '다른 세계'로, 지상의 인간이 다다를 수 없거나 다다르기 몹시 힘든 장소로 묘사되어왔다. 내가 설정한 낙원이 '살기 좋은 곳'인 이상, 천국(heaven)과 유사점이 많을지언정 동의어로 사용한다고 할 수는 없다. 천국은 사람이 사후 도달하는, 육신과 물질이 배제되고 신, 사랑, 은혜, 영혼 등 형이상학적인 긍정적 감정들이 강조되는 장소인 반면 낙원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원에 대립가능한 개념은 지옥이 아니라 인간세상(이하 인세)이다. 낙관적인 낙원세상은 비관적인 인세 속의 부정적인 혼돈, 붕괴, 전쟁에 맞서 조화, 온전, 평화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이는 인간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스테인드 글라스 스타일, 도시 전경을 반사하는 물에 둘러싸인, 식물로 찬 섬. 이 프롬프트 하나하나에는 필자가 해석한 낙원의 이미지가 밀도높게 반영되어있다. 낙원의 생명력이라는 키워드는 그 속의 각종 동식물과 물(바다)을 연상시키고, 장벽, 담장이라는 어원은 세속과 단절되고 접근하기 어려운 '섬'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이상향의 개념으로서의 낙원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환상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낙원은 지극히 종교적이고 평면적이다. 비관에 대한 낙관적 이상향으로서 그 '개념'이 존재할 뿐 현존하지 않으며, 탈속세와 밀접하게 관계한다. 낙원과 인세의 대조는 종이의 앞뒷면처럼 공존과 동시에 분리되어있으며, 낙원은 항상 인세보다 '우월한' 상위의 가치로 인간이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를 올려다볼 때처럼 지향하고 우러러보아야 하는 대상이자 세계이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기독교적 이미지를 강조했으나 발표를 준비하며 내가 생각한 낙원은 그리스 신화의 이미지 또한 반영한다. 환상세계의 요소와 탈인세의 면모를 갖고 있으나 결국 인간세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이 없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마치 신들이 완전해보이나, 메타적으로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발표에서도 인간세계와 공존하면서도 대립되는 개념임을 강조하여 기호사각형 모델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AI 툴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첫 번째는 꿈보다 해몽에 대한 유혹이었다. 결과를 내기 위해 여러번 툴을 가동시킬 때, 우연히 의도와는 다르지만 그럴싸한 몇몇 이미지를 마주하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의도하였다고 덮어씌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충동을 느꼈다. 하나 해석자가 아니라 생성자로서 AI 이미지는 오직 직접 넣은 명령어만으로 의도를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자의 기호학적 역량이 감당가능한 이미지가 도출될 때까지 시도하였다.

두 번째는 기호학적 해석과 이미지가 시각적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어떤 요소가 무슨 요소와 대립하는지, 어떤 상징성을 이미지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이미지의 소비자나 해석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이 놀랍고 흥미로워 인상깊었던 과제였다.



한량

이윤호

언어학 2018131638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이윤호, <섭리(攝理)>, 2023

Prompt

With realism style, there is the god watching wild monkeys those are fighting with themselves with bananas in the paradise.

작품 해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27]

넘쳐나는 바나나와 더 많은 바나나를 위해 싸우는 원숭이들, 단지 이 광경을 바라보기만 하는 신. 천국이라는 이상적인 공간에서도 우리 영장류의 욕심과 폭력성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신은 지켜보기만 할 뿐.

이 작품은 언뜻 보았을 때 천국에 있는 신으로 추정되는 한 남자와 풍족하게 바나나를 즐기고 있는 원숭이들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원숭이들의 표정은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굉장히 화가 난 듯 보인다. 넘쳐나는 바나나를 두고서도 서로 더 많은 바나나를 갖기 위해 애쓰는 원숭이들을 퍼스의 관점에서 분석하자면, 표상체 혹은 대상체로서 원숭이와 바나나의 해석체는 인간과 자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천국(Paradise)이라는 이상적인 공간에서도 인간의 욕심과 폭력성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단순히 관망하고 있는 신의 모습에 대한 해석체는 자원을 위한 경쟁을 일삼고, 평화를 모색하며 동시에 폭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제3자 혹은 초월자)의 개입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개인 이메일 : ais200@naver.com



의미 수집가

임예진

국어국문학 2019130016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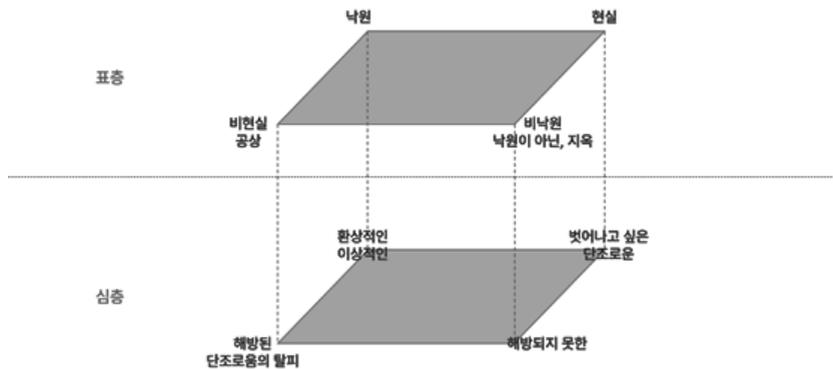
임예진, <낙원이라는 환상>, 2023

Prompt

The reality hidden under the illusion of paradise. There is no paradise of a man who works aimlessly. People can't see the essence.

제시어 'Paradise'를 인류의 인간적 해방으로써 '낙원'의 관점에서 기호사각형 및 행동자모델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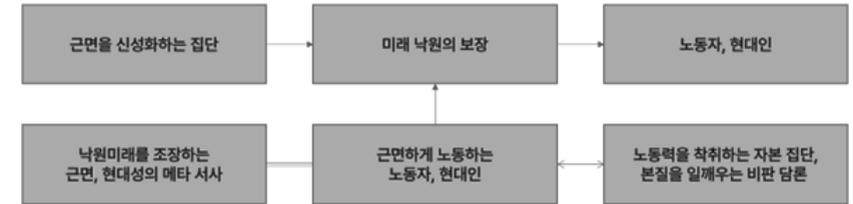
먼저, 해방된 '낙원'의 이항대립항은 해방되지 못한 '현실'이다. 각각의 모순항은 '비낙원', 지옥' 그리고 '비현실', '공상'으로 나타난다. 더욱 심층적인 차원에서, 각 항은 다음과 같다. '낙원'은 '환상적이고 이상적인'으로, '현실'은 '벗어나고 싶고 단조로운'으로, '비낙원'은 '해방되지 못한'으로, '비현실'은 '해방되고 단조로움에서 탈피한'으로 확장될 수 있다. 즉, '낙원' 기호사각형은 "현실은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며, 그러한 현실로부터 탈피하면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낙원이 실현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의 사람들, 즉 근면하게 노동하는 현대인들은 언젠가 해방된 공간, 이상적 낙원이 도래하리라는 믿음으로 일한다. 그런 점에서 '낙원'의 기호사각형은 '미래 낙원의 보장'이라는 메시지를 설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낙원의 기호사각형 분석

이를 중심으로 행동자모델을 분석해 보자. '미래 낙원의 보장'이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를 수용하고 믿는 수신자는 '현대인'이자 '노동자'이다¹. 그렇다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발신자는 '근면을 신성화하는 집단'이 된다. 한편, 이러한 메시지를 추구하는 주체는 '근면하게 노동하는 노동자, 현대인'이다. 이들의 조력자는 '낙원 미래를 믿게 만드는 현대성의 메타 서사'²이며, 대립자

는 '자본 집단' 혹은 '현대성의 본질을 일깨우는 비판 담론'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메시지에 대해 상반된 발신자와 주체는, 낙원 담론이 자본가의 계급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이자 신화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행동자모델 분석

정말로,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낙원이 오는가?' 위의 명령어와 AI 디자인은 이러한 주제를 묘사한다. 언젠가 도래할 낙원을 욕망하며 맹목적으로 노동하는 무채색의 현대인과 생동감 있는 색상으로 빛나는 낙원이자 이상향이 대립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한 현대인들은 형체가 없는 무엇인가를 갈망하지만, 낙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매몰되거나,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순환한다. 흰 새가 되어 낙원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나, 이미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소수일 뿐이다.

명령어에 'Paradise of a man who works aimlessly'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해당 디자인을 통해 스스로 깨닫거나 믿게 된 점은, 맹목적 활동이 아닌 '목적'의 중요성이었다. 본질을 알아채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림자에 갇혀 있는 자에겐 그 어떤 낙원도 도래하지 않는다. 목적성을 가지고 본질을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으며, '신화 낙원'이 아닌 실제적 낙원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이메일 : dppwls0414@naver.com

¹ 여기서의 '노동'은 일/작업에 대한 모든 행위를 뜻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을 말한다.

² '현대성의 메타서사란, 리오타르Lyotard가 근대성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메타서사'에 의지한다고 주장한 데서 차용했다(양문덕, 1993; Jean-François Lyotard, La Condition Postmoderne, 1979). 그에 따르면, 메타서사는 노동하는 인간이 근대의 발달에 의해 인류적으로 해방될 수 있다는 하나의 신화이자 억압적인 이야기로 작용한다. 메타서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현실의 작동과는 관계없이 현대인이 그 신화를 믿게 만든다는 것이다.



일상의 아름다움을 수집하는 여행가

이준석

언어학 2020131604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이준석, <Back to the ashes>, 2023

Prompt

Draw a picture of money, luxuries high-end dishes, high- status plaques burning in the fire. The smoke from these objects burning appears in very beautiful colors. In order to emphasize the binary nature of the fire and objects, it would be nice if the colors of the two were clearly contrasted. Include all the elements of the burning thing but reduce the amount and increase the proportion of fire.

이항 대립	
불	욕망의 산물(물건들)
자연의	인공의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가 서사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서사 도식 (Narrative Scheme) 프레임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Contract (계약)

탈욕망적 삶의 추구&다른 말로는 '파라다이스'와 가까워지고자

Competence (역량)

끝없이 커지는 욕망의 끈을 잘라내야한다. (의무) /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닌 탈욕망적 삶을 살고 싶다. (의지) /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고, 욕망의 끈을 어떻게 잘라내는지 알고 있다. (지식) /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남으로써 노력함을 통해 보다 나은 삶, '파라다이스'적 삶을 얻을 수 있다. (능력)

Performance (수행)

인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각각의 욕망이 나에게 있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어떠한 욕망이 가장 큰지) 생각해보는 자기객관화 과정
 각각의 욕망을 끊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 실시, 끊기 힘든 욕망일수록 보다 강도 높은 노력과 많은 시간을 투자

Sanction (승인, 상벌&제재)

삶의 여유, 무한한 욕망의 뒤편에서 벗어남. '파라다이스'적 삶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고, '바쁜 현대인들의 삶'이 '파라다이스적인 삶'에 대비되는 삶이라 정의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토록 현대인들을 '바쁘게' 만들었나. 그 답은 무한하고 채워지지 않은 인간의 욕망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림에서 나오는 여러 물건들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물건들(돈=경제적 욕망, 고급 음식=사치스러운 식욕, 명패=사회적&지위적 욕망)이다. 앞서 욕망의 산물들과 대립하는 이항대립적 대상으로 '불'을 선정했는데 이는 단순히 물건을 태워 없애버리는 매개체의 역할 때문 뿐만 아니라, 불이 가지고 있는 자연성을 강조한다. 불은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가장 처음으로 신이 선물한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욕구의 측면에서가 아닌 생존의 문제에 있어 인간에게 의미가 있는 자연적 산물이다. 이러한 불에 의해 인간의 욕망이 산화되어 없어지면서 이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파라다이스는 '이상적인 세계'일 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탈욕망적 삶의 추구를 통해 파라다이스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지만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욕구를 배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는 파라다이스의 '이상성'을 나타낸다.

개인 이메일 : dlwnstjrghkdld@naver.com



자유로운 영혼

전우영

문화콘텐츠학 2020400404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전우영, <당신의 낙원은>, 2023

Prompt

photo realistic style, a dirty room with a dark atmosphere, the floor of a room with trash rolling around and clothes sprawling, a walled bed, only bed is walled, the inside of the wall is very clean and bright, a neat white bed, a blanket and a pillow placed neatly on the bed, ultra detail, a view from above, Light Upscale Redo, --ar 16:9 - Upscaled (4x) - Image #4

AI 제작 이미지

Paradise, 낙원을 키워드로 필자에게 있어 낙원으로 여겨지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광활한 초원, 드넓은 바다보다도 방 안의 침대를 최고의 낙원이라고 느끼는 1인으로서, 더러운 방 안에서 새하얗게 빛나는 침대를 Paradise로 나타내고자 했다.

AI 제작 이미지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1) 소쉬르의 이항대립을 통한 분석

Paradise는 그 어원이 'pairi-daeza(둘러싸인 곳)'로, 담장으로 둘러싸여 어떠한 형태로 구분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항대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제작 이미지에도 이항대립적 분석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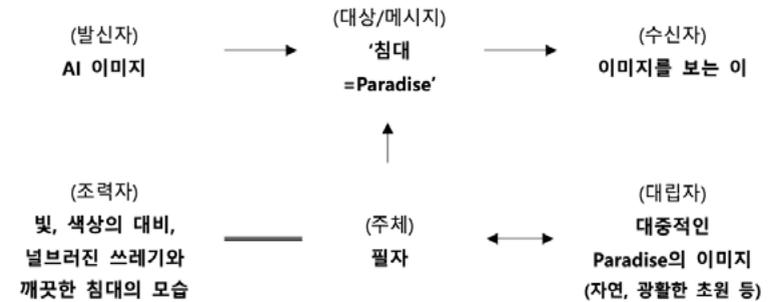
깨끗	더러운
밝음	어두움
정돈된	널브러진
편안한	불편한
화사한	칙칙한
폭신한	딱딱한
내부	외부
Single-colored	Multicolored

2) 퍼스의 기호학을 통한 분석

퍼스는 모든 기호가 대상체(object), 표상체(representamen), 해석체(interpretant)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이러한 퍼스의 기호학을 기반으로 AI 생성 이미지를 해석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표상체는 이미지 속 여러 요소들, 대상체는 필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Paradise에 대한 인식, 해석체는 이미지 요소에 나타나는 의미로 보았다.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쓰레기	침대가 낙원이 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	낙원의 완성을 방해하는 요소
하얀 침대	필자가 느끼는 유일한 낙원	더러운 방과 비교되는 물체
창문	낙원과 낙원이 아닌 곳을 구분하는 요소	내부와 외부의 구분선
빛	침대가 낙원이 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	낙원과 낙원이 아닌 곳을 구분 짓는 요소

3) 그레마스의 행동자 모델을 통한 분석



이미지 생산에 사용한 최종 명령어 프롬프트

photo realistic style, a dirty room with a dark atmosphere, the floor of a room with trash rolling around and clothes sprawling, a walled bed, only bed is walled, the inside of the wall is very clean and bright, a neat white bed, a blanket and a pillow placed neatly on the bed, ultra detail, a view from above, Light Upscale Redo, --ar 16:9 - Upscaled (4x) - Image #4

개인 이메일 : uyeoung200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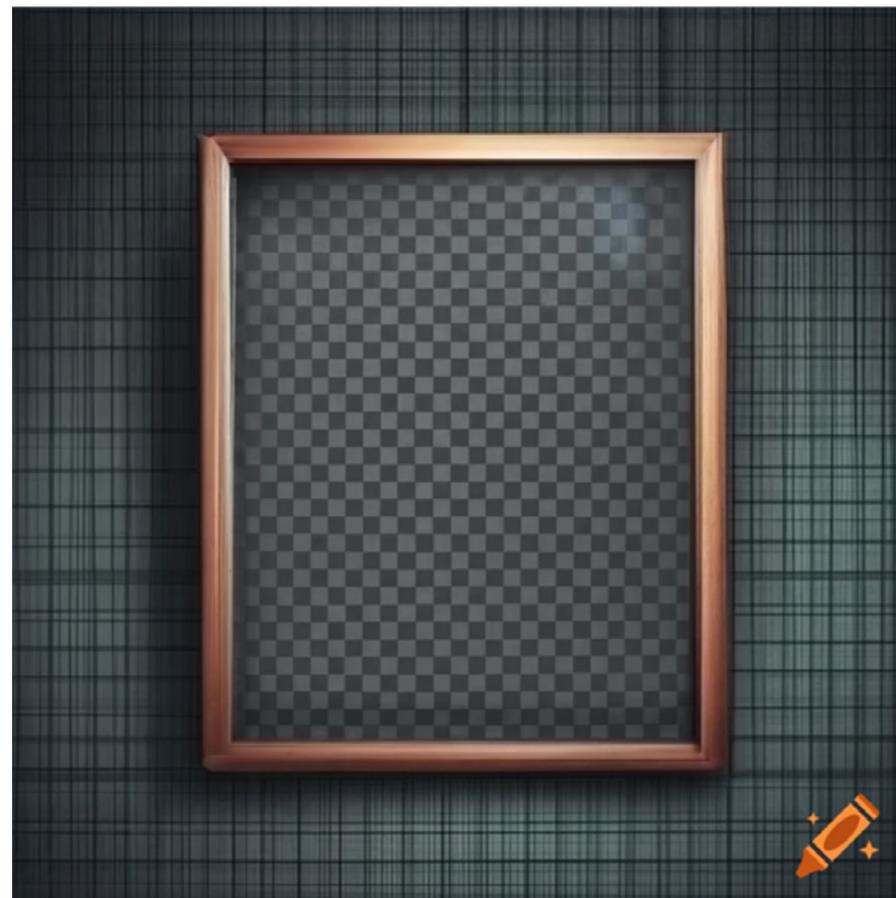


눈 뜨고 있는 빨간 머리

조수민

언어학 2020131617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조수민, <발밑을 보시오>, 2023

Prompt

a framed canvas filled with photoshop transparent background grid pattern hanging in the dark empty room(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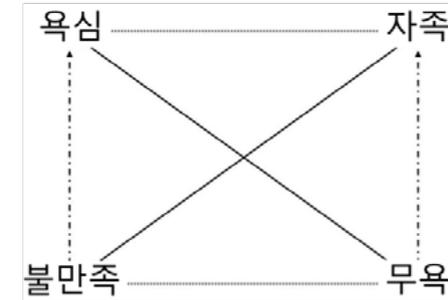
<낙원>의 액자는 비어있다

'파라다이스(paradise)'라는 주제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다소 막막했다. 종교마다, 더 나아가 개인마다 다를 파라다이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아우를 수 있을까? 먼저 아무 사전 자료 없이 닥치는 대로 떠올려보았다. 하지만 낙원에서는 전쟁도 없었으면 좋겠고 사기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상투적인 문장밖에 떠오르지 않아 국어사전의 도움을 빌렸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파라다이스란 '걱정이나 근심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낙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여러 텍스트들을 읽어보았을 때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괴로움이 없는 장소'였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 낙원이라는 건 있어야 할 것들의 집합이기 보다는 제거하고 싶은 대상이 소거된 곳에 더 가까웠다. 그쪽으로 초점을 좁히자, 이제는 최종 결과물이 언어로 된 문장이 아니라 이미지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언어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부재와 추상 개념을 설명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주어진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 AI를 이용할 때는 '~없음(without ~)'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리라고 판단했다.(그림 1)



(그림 1)
SEQ 그림 /* ARABIC 1 AI 이미지 생성기 'Crayon'의 'place without war' 프롬프트의 출력 이미지. 전치사 'without'이 반영되기 보다는 키워드 'war'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결과값이 산출되었다.

그렇기에 제거되어야 하는 요소의 반대항과 모순항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극적인(positive)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항대립 구조와 기호사각형은 다음과 같다.



전쟁, 갈등, 걱정, 근심 등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1차적으로는 자원의 부족을 떠올렸으나 현실 세계 속 소수에게 주어진 과잉 풍요를 생각하면 문제는 더 근본적인 곳에 있는 듯하다. 그래서 결핍은 애초에 현재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는 마음, 탐욕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탐하는 마음의 반대는 스스로 넉넉함을 충분히 느끼는 '자족'의 상태일 것이다. 그리고 욕심의 모순항은 무욕, 즉, 욕심을 느끼지 않는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생각이 여기까지 다다랐을 때, 자족하며 무욕한 상태의 인간이라는 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인간 내지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그는 이미 충분히 만족했기에 더 이상의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동시에 욕심이 없기에 더 이상의 요구도 하지 않는, 정지된 상태일 것이다. 더 이상의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는 상태, 그래서 낙원이란 결국 '무'의 공간을 의미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무'의 공간을 이미지로 표현하려고 하니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ai의 부정 개념 표현 역량 부족)에 다시 봉착해버리고, '무'의 반대항과 모순항 구조를 추가적으로 그리기에는 존재론적 논의에 대해 너무 무지하기에 여기서 전개를 그만두고 '무의 세계'를 표현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이미지의 형식을 사용해야하는 이번 과제에서는 '무'를 표현하는 양식으로
서 포토샵의 투명 표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더 나아가, 파라다이스라는 것은 결국 현실 세계, 결핍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한
다. 인간의 가치가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유한함에서 비롯하듯, 파라다이스는 어떠한 실체로 나
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과 상정 속에 한정되어 존재하기에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진다.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해 단어의 어원을 이용하기로 했다. 'paradise'는 고대 페르시아어의 '파이
리 다에자(Pairi-daeza)'에서 시작된 단어로, '왕실 공원', '담장을 둘러친 정원' 등을 의미한다.¹
그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신들의 집 안에 정원의 형태로 안식처를 두고
싶어했다. '에덴 동산'의 경계, 제한된 '담장' 개념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와 일치했다. 하지
만 정원 개념은 평생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 온 내게 어색한 문화이기 때문에, <몽유도원도>
에서 착안한 그림의 형식, 즉 액자 속의 낙원이라는 개념을 택했다. 현실에 한 발 걸쳐져 있는 듯
하나, 어디까지나 제한된 프레임 속에서만 존재하기에 파라다이스는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어
디까지나 그림에만 머무르는 곳이어야만 어디에도 없는 곳, 유토피아인 것이다.

우리의 낙원이 '무'일뿐임에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 괴로운 자취
방에서 전우치 마냥 그림 속으로 도망치고 싶어도 그것은 액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투명한
낙원 바깥의 바닥을 분명히 디딘 채로 배회할 뿐이다. 하지만 낙원이 없다는 것은, 천당도 지옥
도 다른 세계도 없다는 것은, 내 삶에게는 신과 다른 인간을 포함한 그 어떤 상위 존재의 심판도
가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계는 이 세계에서 끝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
를 자유롭게 한다. 꿈의 종착지인 낙원이 '무'이기에 우리는 비로소 마음껏 헤맬 자유를 갖는다.

개인 이메일 : 2020131617@korea.ac.kr

¹ 조신권, "Paradise Lost의 공간: 에덴 동산", <기독교와 어문학> 제3권 1호(2006), 5-37.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나다운 것이다

조유빈

경영학 2021120135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조유빈, <파라다이스호텔 평양>, 2023

Prompt

Top class hotel, luxurious, pyongyang, North Korea, realistic, dictator, city, artistic, military, exterior, communism, people, warm

Paradise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단어들이다. 개인적으로 지상낙원, 천국, "Almost paradise ..."로 시작하는 노래, 파라다이스시티호텔, 행복, 에덴동산 등이 떠올랐다. 그 중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야 흥미로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만약 최고급 호텔인 파라다이스호텔이 평양에 지어진다면?'이라는 생각에 다다랐다. 현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인공지능이라면 그 모습을 그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시가 북한과 파라다이스 호텔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또한 부의 측면에서 5성급 호텔과 아사자가 속출하는 독재국은 대립항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둘이 결합되었을 때의 새로운 통합체를 기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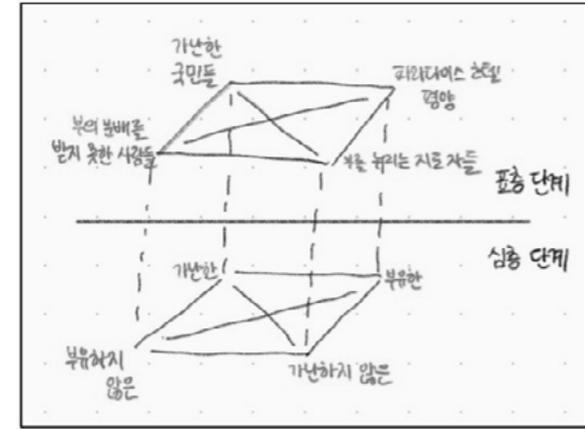
AI 이미지 생성물은 Mage를 이용하였다. 입력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다.

Top class hotel, luxurious, pyongyang, North Korea, realistic, dictator, city, artistic, military, exterior, communism, people, warm

명령어는 북한을 표현하는 키워드 Pyongyang, north Korea, dictator, military, communism과 파라다이스호텔을 표현하는 키워드 top class hotel, luxurious, tourists, people, warm을 조합하였다. 호텔 외관의 이미지를 얻고 싶었기에 exterior과 city를 추가하였고, 형식적으로는 artistic과 realistic을 명령하였다.

그렇게 얻은 이미지를 살펴보면, 고급 승용차를 중심으로 그를 지키고 있는 당원, 그 뒤로 넓게 펼쳐진 정원과 커다란 호텔이 보인다. 합리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면, 평양에 위치한 이 호텔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지도자와 고위층만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호텔 밖의 대다수 국민들은 공동 소유를 표방하는 공산주의 아래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최고급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저 이미지 속에도 가난과 부유라는 이항대립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미지에 나타난 내러티브를 기호사각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가난 ↔ 부유'라는 이항대립을 시작으로 그린 기호사각형은 다음과 같다.



'가난한'의 모순항인 '가난하지 않은', '부유한'의 모순항인 '부유하지 않은'을 적어 심층단계를 구성했고, 표층으로 나타난 부유함이 '파라다이스호텔 평양'일 때 대립되는 '가난한 국민들'을 비롯하여 표층으로 나타나는 항들을 채웠다. 기호사각형 분석을 통해 이미지에는 드러나지 않는 '처절한 가난함'이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활동을 통해 파라다이스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지상낙원을 표방하는 5성급 호텔의 모습으로 딱 차 있다. 하지만 저 모습을 과연 파라다이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독재정권으로 인해 화해될 수 없는 이항대립은 끝없는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파라다이스가 그러한 모습이라면 절망적이지 않나. 진정한 파라다이스는 부유와 가난이라는 대립항이 화해되어 경제적 상황의 어떠한 상관없이 모두가 살만 한 세상일 것이다. 기호사각형 분석을 통해 독재국의 최고급 호텔로부터 시작된 담론이 체제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난한 자들을 향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듯 의미 확장을 통해 소외된 영역을 발견한다면 더욱 공동체를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시를 활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처음 '파라다이스호텔 평양'이라는 주제를 선정했을 때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단 몇 번의 시도만에 예상과 매우 흡사한 이미지가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시를 사용한다면 컴퓨터의

능력을 빌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로 시작했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결국 명령을 하는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상 속에 있던 그것과 유사한 이미지로 추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결국 우리가 생성형 AI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탄생,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일 순 없을 것이다. 단지 의미의 확장은 인간의 몫이며, AI는 확장되어 새로워진 의미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I로 인한 인간 소외가 주목받는 이때에 무기력함을 느끼기보다는 AI가 열어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에 주목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 이메일 : choubin@naver.com



'삶'보다는 '죽어감'을 지향하는 인간 덕후

조승준

언어학 2021131634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조승준, <La Mappa del'Paradiso>, 2023

Prompt

Create an image smoothly shifting from Botticelli's dark 'The Abyss of Hell' to the radiant colors of his envisioned 'Paradiso.' Emphasize the stark contrast between infernal darkness and heavenly radiance. Depict a gradual color transition from ominous hues to celestial blues, radiant golds, soft whites, and ethereal greens. Capture Botticelli's style in symbolizing the journey from darkness to divine beauty, representing the transition from Hell to Paradiso

본고의 목적은 OpenAI에서 개발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Dall-E 3에 기반해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화풍의 단테 알리기에리(Dante Alighieri)의 『신곡 천국편(La Divina Commedia - Paradiso)』 삽화를 생성하고 이를 기호학적으로 해설하는 것이다. 보티첼리는 단테의 『신곡 지옥편(Inferno)』의 삽화를 제작한 화가로,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지옥의 지도(La Mappa dell'Inferno)」는 지옥의 주요 모티프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A. Schopenhauer)가 지적했듯이, 현실과 닮아 있어 생동적으로 묘사된 지옥과 다르게 단테의 『신곡』에서 천국은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묘사된다. 필자는 본고에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 보티첼리의 화풍과 일관성을 가지는 천국의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회화 작품을 제작한 후, 이를 그레마스(A. J. Greimas)의 기호사각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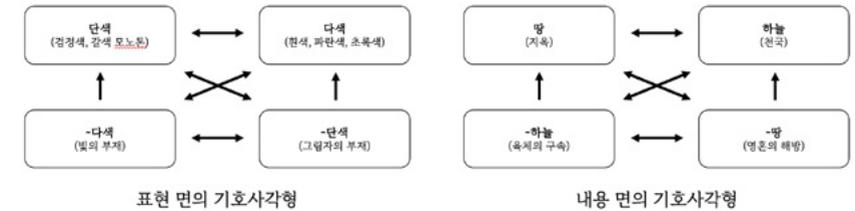
1. 최종 명령어 프롬프트

최종 명령어 프롬프트 : "Create an image smoothly shifting from Botticelli's dark 'The Abyss of Hell' to the radiant colors of his envisioned 'Paradiso.' Emphasize the stark contrast between infernal darkness and heavenly radiance. Depict a gradual color transition from ominous hues to celestial blues, radiant golds, soft whites, and ethereal greens. Capture Botticelli's style in symbolizing the journey from darkness to divine beauty, representing the transition from Hell to Paradiso."

2. 표현과 내용의 기호사각형에 기초한 이미지 해설

단테는 『신곡 천국편』에서 천국(Paradise)을 지구를 둘러싼 10개의 둘레로 묘사하였는데, 이는 아홉 개의 하늘과 하느님의 영역인 정화천으로 구성된다. 단테는 지옥과 연옥을 안내한 베르길리우스와 작별한 후 베아트리체와 재회하며, 그녀의 안내 하에 제1영역인 월성천부터 시작하여 제9영역 원동천을 방문한다. 제10영역인 정화천에서 단테는 성 베르나르도의 안내로 찰나의 섬광에서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만난다. Dall-E 3가 제작한 「천국의 지도」는 복수 개의 하늘 끝에 섬광이 있다는 점에서 『신곡』에서 묘사되는 천국의 구조와 유사하되, 프롬프트에 명시하지 않은 순서대로 각기 다른 색의 그림을 배치하였다. 좌측에 생성된 이미지는 지옥에 해당하

며, 우측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천국의 이미지에 가까워진다. 좌측의 그림을 지옥으로 판단한 것은 보티첼리가 기존에 작업한 지옥편과 연옥편의 삽화의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이항대립을 표현과 내용의 기호사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해설은 고전적 인간상에 대한 간략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은 「천국의 지도」에서 나타나는 표현과 내용의 기호사각형이다.



표현 면에서 「천국의 지도」는 단색과 다색의 대립을 드러낸다. 검은색과 갈색으로 구성된 좌측의 단색조 이미지들은 내용 면에서 땅과 대응하고, 다채로운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구성된 우측의 이미지들은 하늘과 대응한다. 화사한 색채가 곧 빛, 하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땅과 하늘의 구분은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하느님의 섬광을 가장 높은 질량의 질점으로 하여 그의 인력에 이끌리는 자들은 하늘에 있으며, 대지를 가장 높은 질량의 질점으로 하여 그 인력에 이끌리는 자들은 땅에 있다. 다시 말해 대지의 중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육체의 구속에 갇힌 자들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궤도에 진입할 수 없으며,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된 자들은 대지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육체의 질량을 잃음으로써 영혼은 하늘에 머무를 수 있다. 「천국의 지도」에서 파악되는 이러한 이항대립은 고전적 인간상과 부합하는 것으로, 인간이 혼과 육의 결합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육을 지배하고 혼으로 향하라는 철학적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플라톤은 신과 대중, 영혼과 육체, 좋은 혈통의 말(육구 능력)과 나쁜 혈통의 말(쾌·불쾌의 감정)을 비롯한 이상적 한계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인간은 중간자이므로 불사자와 필멸자의 사이에 위치하는 등 위 상반항들이 혼재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데아의 모방(Mimesis)인 인간은 동시에 이데아에 참여(Methexis)하고 있으므로 영혼의 눈으로 참된 본질을 보며 로고스로 두 마리 말을 다스려야 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한 인간상 역시 신을 닮았지만 신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중간자로서의 인간을 강조하고 이상의 추구를 촉구하였는데, 이러한 고전적

인간상의 맥락에서 「천국의 지도」는 하늘뿐만 아니라 땅이라는 상반항을 함께 생성하여 천국을 부각하고 육체로부터의 해방을 제시하고 있다.

「천국의 지도」의 내용 면에서 나타나는 이항대립은 천국과 지옥의 구분이다. 천국에 가지 못한 자들은 용서가 거부당한 사람들이고, 지옥에 가지 않은 자들은 용서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때 '~지옥'과 '~천국'이 상반 관계임을 고려한다면 둘이 상호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고, 따라서 용서가 거부당했으나 여전히 여지가 있는 자들이 가는 장소인 '연옥'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연옥은 천국과 지옥이 혼재되어 있는 중간적 장소이며, 따라서 하늘과 땅이 혼재되어 있는 지상의 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하늘은 영혼의 집이며 땅은 육체의 집이다. 영혼과 육체 사이에 놓인 중간자로서의 인간은 육체의 구속으로 인해 대지라는 질점의 인력에서 해방될 수 없으나, 동시에 영혼의 눈으로 하느님이라는 이상에 참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천국의 지도」에서 파악되는 고전적 인간상에 따르면 인간은 선악이 혼재되어 있는 중간자이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되어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고, 따라서 중간자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고 속죄하여 선을 추구해야 한다. 본 맥락에서 단테의 『신곡 천국편』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비판으로 되돌아가면 천국에 대한 단테의 묘사가 추상적이고 애매한 이유를 밝힐 수 있다. 연옥과 유사한 현실을 사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뒤섞인 불완전한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중력에 이끌려 땅에 두 다리를 둘 수밖에 없다. 땅과 육체의 구체적인 고통에 대응되는 지옥은 현실과 유사한 반면, 천국은 현실의 부정에서 도출되는 이상이므로 구체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천국의 정체성은 지옥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이상·원상·본을 구조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그릴 수 없으므로, 천국(이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옥(현실)과의 이항대립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파라다이스, 에덴, 유토피아를 비롯한 이상향의 공간들은 실재하지 않으며 다만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자각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필자는 이상에 다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관념실재론을 비판하고자 한다. 윌리엄 오컴(William of Ockham)의 유명론을 다루는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좇아야 할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겠느냐?”

¹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이윤기 역, (열린책들, 2009), 871pg

관념은 현실의 부정으로써 발명되는 것이므로 관념실재론에 함몰되어 단일한 의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Dall-E와 미드저니(Midjourney)를 비롯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들의 시대에 현대인은 생성된 텍스트에 실재하는 원상이 있다고 종종 혼동한다. 진짜와 가짜의 이분법 역시 '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되므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를 단순히 가짜로 치부하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들을 경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와 그 랑그에 기투된 인간 존재자로서, 내용이 아닌 표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관념실재론에 기대어 현상 너머의 원상을 보려고 하는 대신, 다시 말해 생성된 이미지가 재현하는 대상을 보려고 하는 대신, 의미작용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모든 확일화에 저항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저항이 하늘이 아닌 땅을 보자는 요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또 「천국의 지도」에서 파악되는 두 기호사각형을 상기한다면, 신에게 용서받지 못할 결론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상 대신 도상에 주목하기로 결단(Iconic Turn)함으로써 우리는 시간과 나날이 늘어갈 육체를 감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개인 이메일 : sjcho1123@korea.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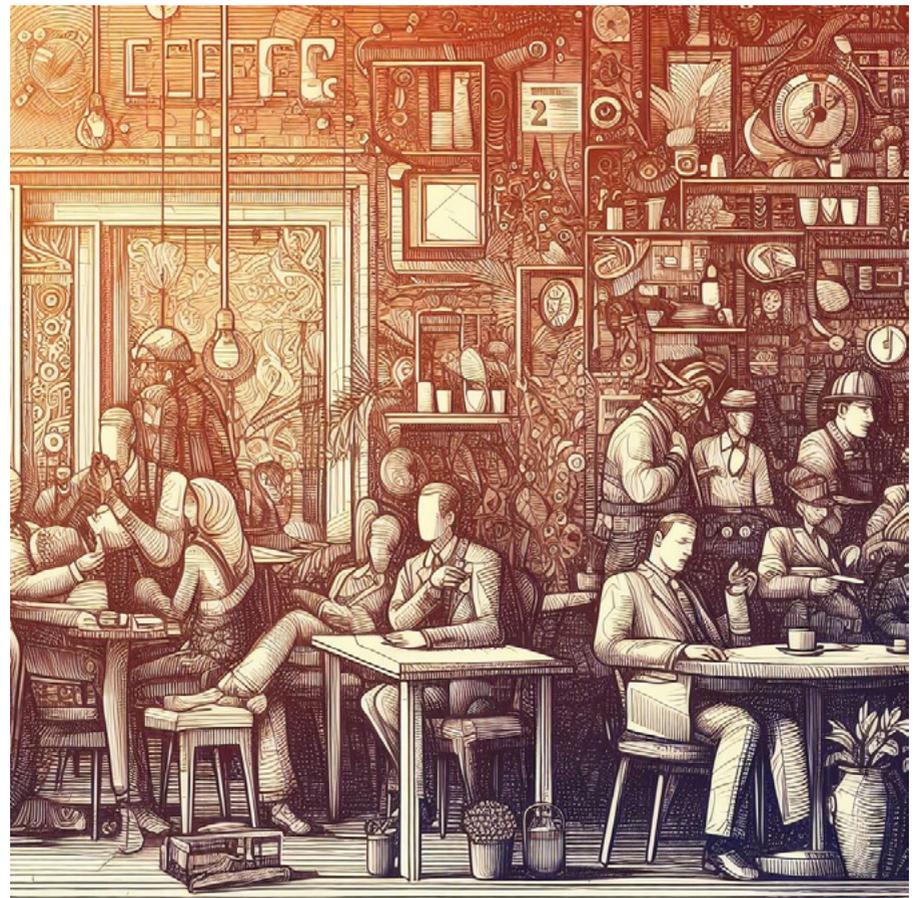


돌맹이처럼 살아보자~!

조현정

방송영상과 2023KU0299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의 이해> | 최장순 겸임교수 | 2023년 2학기



조현정, <환상 없는 낙원을 위하여>, 2023

Prompt

Cozy café atmosphere, consists of office workers, cleaners, CEOs, firefighters, artists, pen drawing, abstract

환상 없는 낙원을 위하여 : 어슐러 K. 르 권,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낙원과 같은 도시, 오멜라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망하는 서술자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진행한다. 오멜라스를 낙원으로 지칭한 데에는 다음 문장을 근거로 든다. ¹ 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오멜라스는 자본이나 폭력으로부터 핍박받지 않는 공간처럼 기술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허나, 이를 차치하고 우리는 낙원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 속 사람들 모두가 하나의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오멜라스의 건물들 중 하나에는 지하실 방이 있고, 그 안에는 한 아이가 있다. 아이는 지저분하고 축축한 방 안에서 배를 굶주린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아이에게 손을 건넬 수 없다. 그들의 멋지고 고상한 낙원을 위한 계약인 것이다. 단 한 명만 희생한다면, 이 낙원은 평생토록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계약은 공리주의의 주장과 맥을 함께한다. ² 지하실에서 고통 받는 아이를 낙원의 지속을 위하여,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림 1은 낙원을 의미하는 paradise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생성된 AI 이미지이다. 이미지 속 인물은 직장인, 청소노동자, CEO, 소방관, 예술가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이루어져있다.

¹ 어슐러 K. 르 권,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최용준, 시공사, 2017, p.457

² 류지한, 권리에 기초한 공리주의 비판과 공리주의의 대응[동의대학교], KCI871pg

그러나 어떠한 고통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멜라스와는 달리, 구체적인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속 세계는 자본이 만든 위계와 물리적·정신적 폭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이미지의 주제가 낙원(paradise)인 이유는 사람들 모두가 카페 안에서 같은 커피를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커피 한 잔으로 사람과 직업 간의 위계가 만들어지고, 그들의 노동이 가지는 가치를 숫자로 환산한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커피를 마시는지에 따라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회 속에서 나이, 성별, 직업, 인종, 장애여부 등을 고려치 않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이 낙원이라고 작가는 생각한 것이다.

낙원(paradise)을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으로 정의 내린다고 하더라도, 세계 안에 괴로움이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순적이게도 낙원은 고통과 함께 존재한다. 오멜라스에서 아이의 고통을 볼모로 낙원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림 1이 보여주는 세계는 소수자도 누릴 수 있는 낙원이라는 점에서 오멜라스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그림 1의 낙원에는 어떤 고통이 수반되고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자본주의 사회 속 필연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소수자도 함께할 수 있는 낙원을 위해선 다수의 가진 자들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공리주의의 입장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주장이다. 소수의 행복을 위하여 다수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수의 행복을 가능케 했던,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노동 간의 위계로 인해, 당연하게 느껴왔던 깨끗한 학교나 공공시설, 따뜻한 식사, 안전한 도시를 유지시키는 사람들을 잊고 살아간다. 매순간을 그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소수자의 행복을 위한 희생을 비합리적 혹은 비효율적 가치판단이라고 결론 내려버린 것이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SPC 계열 공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벌어졌고, 지난 2년 동안 DL 이앤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노동자 8명이 사망했다. 아름다운 날씨, 말이 뛰어다니는 들판, 웃음이 가득한 축제가 존재하는 곳보다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일하러 갔다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낙원에 가깝지 않을까. 이젠 환상이 가득한 낙원보다는, 어제보다 나은 현실을 위한 낙원이 필요할 때이다.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디자인 기호학 <AI 디자인 VR 전시회>

정보

학과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학과장 김성도 교수)
주제	My paradise, Not yours
발행	2023년 12월
발행 책임	최장순

함께 만든 사람들

총괄 디렉팅	최장순 겸임교수(LMNT)
기획 및 편집	박지혜(LMNT)
표지 디자인	곽정인 김동규 김혜원 유지지 조현정
내지 디자인	박유빈 전우영
촬영	이윤호 이서빈 조수민 조유빈
검수	김윤진 김정 민세홍 미우라마사코 박예진 배소혜 손정민 야마모토나오 오노유리카 윤이상 이상미 이준석 임예진 조승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상단 QR 코드를 인식하면
VR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도록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 사용 및 전재할 수 없습니다.

Design Semiotics